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 그 속과 겉

하토리 히데오

九州大学 : 名誉教授 | くまもと文学・歴史館 : 館長

조, 정민

釜山大学 : 教授 |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科 : 博士取得

石橋, 道秀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科博士課程 : 単位取得退学

<https://hdl.handle.net/2324/1833807>

出版情報 : 2017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제 11장 히데요리(秀頼)의 아버지

히데요시는 천민의 세계를 경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밑바닥에서 최정상에까지 이른 일본역사상 유일한 인물이다. 히데요시 주변에는 언제나 천민 계급과 밀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히데요시의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이하에서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음양사(陰陽師 점복, 풍수지리를 맡아보던 관원)들은 일본의 역사에 크게 관여해 왔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말살되어 온 경향이 있다.

1. 의문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먼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히데요리의 아버지가 히데요시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나는 히데요시 불임일 확률이 높다고 I 의사 (I 시 중앙병원 산부인과 부장)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아주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히데요시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을까. 아내와 첩을 제외하고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테케세신카후伊達家世臣家譜』(茂庭氏の項, 仙台叢書, p.90)는 ‘당시 측실이 16 명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이므로 평생 동안의 첩의 수는 또 다르며 당연히 첩의 수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다.(질병으로 그만두는 자가 있기도 했다.) 권력자라면 예사로 있는 일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16명 보다 훨씬 많았다.

히데요시는 덴쇼 19(1591)년 12 월 20 일자로 조카 히데쓰구에게 주인장(朱印狀, 전국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발급된 주인朱印이 찍힌 명령 문서)을 보냈는데(本願寺文書、후지타 쓰네히루藤田恒春 『도요토미히데쓰구 연구 豊臣秀次の研究』 2003, p.111), 거기에는 “나는 여자에게 미쳐 있다. 부디 나를 본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혀있었다.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히데요시 본인도 자신이 호색가라는 것을 인정했다. 프로이스의 『일본사日本史』도 이러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프로이스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스스로도 많은 여성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200 명 이상(mais de 200)의 여성이 오사카 성에 있었다. 별도로 정청에 귀족의 딸 300 명(trezentas mulheres)을 두고 있었고 다른 곳에도 여성을 두고 있었다.

(마쓰다·가와사키 번역책 2-p.199. Louis Frois *HISTORIA DE JAPAM*, Biblioteca Nacional-Lisboa, 1984, C, 69, V-p.530; II -p. 315; C, 80 V-p.604; chap. 16, I -p.318)

그렇지만 이 수는 시녀나 여자 몸종을 포함한 수였을 것이다. 프로이스는 앞의 기사에 이어 히데요시의 짐승과 같은 성욕 때문에 교토나 사카이에서 결혼 전의 처녀나 과부들이 매일 같이 오사카 성으로 끌려왔고, 그 가운데 히데요시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성은 성 내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시녀나 몸종의 이동을 프로이스가 오해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여성의 생활비는 히데요시가 부담하고 있었고, 오사카 성과 주라쿠 성(聚樂城), 후시미 성(伏見城) 내의 모든 여성들은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모두가 그런 대상이지는 않았다.

프로이스가 인용한 1588년 3월 3일자 오르간티노 서간에서는 극단적인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2-p.16, segunda parte, C, 36, V-p.26)

“궁전은 전제군주를 위한 매춘장소(postribulo, 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에는 유곽이라고 되어 있다)에 지나지 않는다. 매춘장소를 관장하는 사람(alcoviteiro) (Amandeetoccun, 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은 Chamado toccun 이라고 잘못 옮김.) 즉 도쿠운(德運, 히데요시의 측근으로 승려이자 의사)이라는 70 세 가까운 승려가 아름다운 여성을 차례차례로 불러들이도록 명령했다.”

쓰루마쓰(鶴松)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이지만, 일부일처제만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에서 다처제에 해당하는 측실제도는 일단 부정해야 마땅한 대상이었다. 성곽은 혐오스러운 유럽의 매춘굴(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에는 유곽)과도 같았다.

측실의 정확한 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히데요시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과 가까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자에게 둘러싸여 52 세가 될 때까지 지냈던 그는 53 세가 되었을 때 차차(茶々, 淀殿요도도노, 淺井氏아자이씨, 淺井長政아자이나가마사의 딸)라는 한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쓰루마쓰 사망 후 곧장 그를 대신할 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측실은 출산을 경험한 여자

차차 외에 다른 여성은 임신할 수 없었다. 히데요시 측실 가운데는 기혼자(결혼경험자)와 미망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출산을 경험한 여자나 전 남편 사이에 아이를 둔 여자가 측실이 되는 경우는 많았다. 예를 들어 히데요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여 항상 옆에 두었던 교고쿠다쓰코(京極龍子, 마쓰노마루도노松の丸殿라고도 불림)는 원래 다케다 모토아키(武田元明)의

정실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 교고쿠 다쓰코가 와카사노쿠니신사(若狭国神社) 경 내외와 민가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이 자쿠슈간세키로쿠(『若州觀跡録』, 『大日本史料』 11 編-1, p.611 쪽)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쿠키陰徳記』에 의하면 오사카 성 내에 있던 우키타히데이에(宇喜多秀家)의 어머니 후쿠(ふく)는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은 것 같다. 그녀 역시 출산경험이 있었다.(후쿠와 히데요시 사이의 이야기는 미쓰나리 준지(光成準治) 『세키가하라 전투의 전야關ヶ原前夜』 NHK 북스, p.191 참조.)

후쿠를 비롯하여 히데요시는 멸망한 다이묘나 자신이 손에 넣은 다이묘의 유족을 가까이 두는 경향이 있었다.(와카사다케다 씨(若狭武田氏)의 다쓰코, 아자이 씨(淺井氏)의 요도도노, 오시 성(忍城) 성주 나리타 우지나가(成田氏長)의 딸 가이(甲斐) 등. 또한 시바타 가쓰이에(柴田勝家)의 아들의 처였던 산노마루도노오다 씨(三の丸殿織田氏)도 그 중 한 사람일지 모른다. 이 책 p.618 참조.) 여기에는 정복욕의 달성과 죄책감, 그리고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또한 패배자의 적의와 전의를 꺾을 수도 있었다. 이리하여 측실 가운데는 경산부(經産婦)가 대거 포함되었던 것이다.

히데요시로부터 멀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측실 가운데는 병약하다는 이유로 히데요시를 떠난 이도 있었다. 히데요시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이들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히데요시가 교토의 다이고지(醍醐寺) 절에서 꽃놀이 연회(다이고노 하나미醍醐の花見)를 펼쳤을 때, 이 연회에도 참가한 바 있는 가가도노(加賀殿), 즉 마에다 마아(前田摩阿,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の 딸)는 병약하여 히데요시가 병으로 쓰러진 후 허락을 얻어 또 다른 귀족인 마데노고지 아쓰후사(万里小路充房)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 이후 그녀는 마에다 도시타다(前田利忠)를 낳았다. (『가가한레키후加賀藩歴譜』,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 『도요토미히데요시 연구豊臣秀吉研究』 p.637)

히데요시의 또 다른 첩 다네(種, 다카다지로 자에몬高田次郎左衛門의 딸)는 히데요시에 의해 모니와 쓰나모토(茂庭綱元,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의 가신)에게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쓰나모토의 아들, 와타리 무네모토(亙理宗根)를 낳았다고 한다.¹

프로이스의 『일본사日本史』에는 “히데요시(関白)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한 첩(manceba, めかけ, 内妻, 情婦, “HISTORIA DE JAPAM” Biblioteca Nacional-Lisboa, C,

¹ 앞에서 언급한 『伊達家世臣家譜』,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 『豊臣秀吉研究』 p.641 을 보면 다테 마사무네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쓰나모토에게 다네를 준 이유는 조선 출병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하나,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80, V-p.606) 은 병들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게 되었다. 히데요시로부터 황금을 받은 그녀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병이 나은 뒤 그녀는 승려와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다. 히데요시에게 인사를 올리러 간 그녀는 히데요시의 분노를 샀다. 남편인 승려와 아들, 유모, 그녀의 어머니 모두 형벌에 처해져 사형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 2-45 장 p.316)

이 사건은 다른 기록 즉, 『도키요시키時慶記』(時慶卿記) 분로쿠(文祿) 2(1593)년 11 월 4 일 항목에도 기술되어 있다. 그 여성은 분명 히데요시의 첩이었고 또 히데요시의 허락 없이 결혼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와 유모는 팽형(烹刑)에 처해졌다’. 그녀 자신과 그녀의 남편은 모두 대나무 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프로이스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이다.(후술)

선교사 보고 ‘1601-2 년의 일본 사정’에는 “성곽에 있던 히데요시의 여자들이 히데요시 사후 성을 떠나 교토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출산한 바 있다. 이들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다. (『16.17世紀イエズス会日本報告集』 p.160) 이 여성이 히데요시의 첩 중 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히데요시 사망 이후 성에서 떠났다면 측실일 가능성도 있다.

히데요시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지만 다른 남성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여성이 적어도 세 명은 확인된 셈이다. 백 명 이상의 측실들 대부분은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는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임신의 문제가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히데요시)에게 있었던 것을 뜻한다. 남성의 결함(무정자증)은 세월이 흘러도 약물 복용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역사학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일까.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이상은 학문이 다룰 바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답인지도 모른다. 히데요리가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문제 설정은 삼류 주간지가 화제로 삼을 만한 주제이므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좋다.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해도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아들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지도 모른다. 필자로서도 이런 주제를 논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각색된 허구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당시, 누구도 그 아이가 히데요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진짜 아들이 되고 말았다. 만약 당시 사람들이 실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그 시대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 사람들의 감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결과만을 계승한 현대인의 감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필자는 해석의 부자연스러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한다. 있을 수 없는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히데요시 본인이었다. 50 세가 지난 이후에도 언젠가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었을 리 없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였다. 그는 호색한이었지만 단지 그런 사람에 그치지지는 않았다. 밑바닥에서 권력의 정점에까지 이른 히데요시의 영민함은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시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는 무관심했지만 세간은 그렇지 않았다.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나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데요리의 아버지가 오노 슈리(大野修理, 하루나가治長)라고 믿었다. 『메이료고한(明良洪範)』(『武士道全集』1912 国会図書館 「근대 Digital Library」 79/30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뒤에서 말한다. 어느 법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요도도노는 오노 슈리와 밀통하여 두 아들, 즉 스테기미(捨君, 쓰루마쓰)과 히데요리를 낳았다. 오노 슈리는 교활하기도 하고 에로틱하며 잘 생겼기 때문에 요도도노는 히데요시 죽음 이후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요도도노는 미남 가부키 배우인 나고야산자부로(名護屋山三郎)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간통을 했다. 오사카 성은 그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메이료고한(明良洪範)』은 사나다 조요(真田増誉)가 쓴 것으로 쇼토쿠(正徳, 1711-16) 시대의 막부 신하에 대한 소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법사는 두 아들이 히데요시의 친자가 아니라고 하며 오노 슈리(하루나가)를 스테기미과 히데요리의 친아버지로 지목하고 있었다.

오노 슈리와의 밀통 소문은 히데요시 사후에 발생

오노 슈리와 요도도노의 밀통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이 쓴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기한바쓰에쓰로쿠萩藩閥閥録』 나이토고겐타 문서 内藤小源太文書・게이초(慶長)4(1598)년 10월 1일 周竹〈나이토 다카하루内藤隆春〉書狀 3-p.169)

오쿠라쿄(大蔵卿)는 오히로이사마(おひろい様)의 유모이다. 그녀의 아들 오노 슈리는 오히로이사마를 받들고 있다. 오노 슈리는 오히로이사마의 어머니와 밀통했다는 이유로 살해될 참이었다. 어떤 사람은 슈리를 우키타(히데이에)가 잡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슈리가 이미 죽었거나 혹은 고야산(高野山) 절로 도망쳤다고 했다.

이는 세키가하라 전투 일 년 전의 상황이다. 요도도노와 히데요리 모두 살아 있던 시절이었다. 도요토미 정권을 지탱하는 필두격인 모리(毛利) 가족 내부에 요도도노와 슈리가 ‘밀통’했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그리고 “오노 슈리 하루나가는 우키타(宇喜多) 집에 보내졌고 살해되었다”거나 “고야산(高野山) 절로 도망쳤다”는 다른 소문도 널리 퍼져 있었다.

나이토 다카하루가 말하는 이 소문은 쓰루마쓰 또는 히데요리 출생 시의 일이 아니라, 훨씬 그 이후인 히데요시 사후의 이야기이다. 때문에 이 소문을 쓰루마쓰 출생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²

보쿠제이(卜筮)법사의 아들이라는 설

아마노 사다카게(天野信景, 1661~1733)의 『시오지리塩尻』 26 (日本隨筆大成第3期-14, p.54)는 앞에서 언급한 『메이료고한明良洪範』의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결론이 완전히 다른 일화를 전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진짜 아들이 아니며 그는 오노 슈리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보쿠제이라는 법사의 아들이다. 요도도노는 이자(보쿠제이)와 밀통하여 스테기미과 히데요리를 낳았다. 오노 슈리는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요도도노와 함께 했다. 요도도노는 용모가 아름답지만 간사하고 음탕하였다.

² 요도도노가 오노 슈리와 사랑했다는 연애설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단다이쇼신로쿠胆大小心録』 (岩波文庫『上田秋成全集』10卷) 등의 학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그녀는 잘 생긴 나고야산자부로에게 빠져서 불의의 일을 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녀는 오사카 성의 붕괴 원인 중 하나였다.

오노 하루나가와의 연애를 히데요시 사후의 일로 보는 견해는 나이토의 의견과 일치한다. 아마노 사다카게는 오와리 지방의 훌륭한 학자였다. 그는 히데요리의 아버지가 오노가 아니라 법사라고 했다. 이 설은 독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무명법사가 히데요리의 아버지라는 에도시대의 학설에 수긍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유추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학설에 무게를 두고 당시의 이야기를 복원시켜 보고자 한다.

한편,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저작으로는 후쿠다 치즈루(福田千鶴)의 『요도도노(淀殿)』(ミネルヴァ評傳選, 2007)가 있다. 필자는 후쿠다 치즈루의 책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료나 연구문헌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 책에서 후쿠다는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실제 아들이라고 단언한다. 히데요시는 잔인할 정도로 질투심이 깊었고 요도도노(차차)는 정숙했기 때문에 ‘밀통’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구와타 다다치카는 『다이코 도요토미히데요시 太閤豊臣秀吉』(講談社文庫, p.182)에서 더 명확하게 히데요리 친자설을 주장하고 있다.

정숙하다는 근거는 불명하며 적어도 동시대인 나이토 다카하루가 전하는 사실과는 정반대이다. 요도도노는 히데요시 사후 삭발하고 불문에 들지 않았다. 기타노만도코로(北政所, 네寧)와 교고쿠 타츠코(마쓰노마루)는 히데요시 사후 곧바로는 아니지만 수년 후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히데요시의 명복을 빌었다.(기키타노만도코로는 고다이인(高台院), 다쓰코는 세이간지(誓願寺)에 들어갔다.) 요도도노는 히데요시와 10 년 정도 생활했고 두 사람의 연령 차이는 30 년이나 되었다.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때 요도도노는 20 세였고,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는 24 세, 히데요시 사망 시에는 29 세였다. 그녀는 히데요시 사망 후에 출가도 하지 않았고 오사카 성에서도 나가지 않았다. 요도도노의 어머니 이치도 남편 나가마사(長政)가 죽은 후에 출가하지 않고 재혼하였는데 그녀도 어머니와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 소문이 나돌게 된 것이다. 요도도노는 역시 자유분방하고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열정 많은 여성이었던 것 같다.

두 번이나 밀통을 한 그녀가 히데요시의 아들을 낳았다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후쿠다 씨와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히데요시가 스스로 명령을 내려 생물학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닌 아이를 요도도노에게 낳게 했다면, 이는 불의도 아니고 밀통도 아니며 처벌의 대상도 아니다.

측실을 둔다는 것은 물론 그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지만, 후계자 출생 때문이기도 하다. 첩을 거대한 성의 일각, 니노마루, 니시노마루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도 들고 하녀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측실을 두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새로이 요도도노를 측실로 맞이했다. 요도도노, 즉 차차는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이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주군이자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했다. 또한 히데요시가 차차의 어머니 이치를 마음에 두었던 것도 사실일 수 있다. 그는 처음부터 차차에게 아이를 낳게 만들려는 계산으로 그녀를 들인지도 모른다. 차차의 입장에서 본다면 히데요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측실이 되었고 아이를 낳는 것을 조건, 혹은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불임 치료 중 하나 인 ‘비배우자간 수정’이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지적

쓰루마쓰와 히데요리 모두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라는 설은 당시에 도 있었다. 먼저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지적을 살펴보자.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는 정자가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므로 그의 아들일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사日本史』 2 p.195; segunde parte, C, 3, V -p.26).

“히데요시에게는 노부나가 여동생의 딸, 즉 조카에 해당하는 측실이 한 사람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남자 아이(쓰루마쓰)가 태어났다고 한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수상히 여겼다. 히데요시는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도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일이 없었다. 때문에 쓰루마쓰가 히데요시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쓰루마쓰가 태어난 후에 성대한 축전을 열고 부인과 아이 모두 오사카 성에 살게 했고 아이의 육아와 보살핌 등을 총신 아사노 단조(淺野彈正, 나가마사長政)에게 부탁했다. 히데요시는 아이와 부인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 일부러 13 만 크루제이로(cruzeiro, 크루제이로에 대해서는 이 책 p.624 참조.)의 돈을 가지고 갔다. 그는 다른 봉건 영주들도 이를 따라 많은 선물을 바치기를 바랐다.”(『일본사日本史』 5-p.257; segunde parte, C, 13, V-p.103)

프로이스는 히데요시의 동생 히데나가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조카 (히데쓰구秀次 및 히데카쓰秀勝)에게도 자식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 사실이 정말일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히데쓰구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고 모두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게이즈산요系図算要』를 살펴보자. 히데나가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딸만 두 명 있었다. 두 딸의 생년은 알 수 없지만 프로이스의 기술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덴쇼 17(1589)년 이후에 태어났다. 히데쓰구의 아이는 많았지만 장남 센치요마루(仙千代丸)는 분로쿠(文祿) 4(1595)년에 여섯 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따라서 덴쇼 17(1589)년에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여동생은 9 살로 덴쇼 17(1589)년에 태어나 있었다. 히데가쓰는 그의 아내 오에요(お江与, 나중에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아내가 되었다) 사이에 사다코(完子, 구조 사다코九条完子)라는 딸을 두었다. 분로쿠 1(1592)년에 태어난 사다코는 덴쇼 17(1589)년에 태어나 있지 않았다.

이처럼 덴쇼 17(1589)년에는 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히데쓰구의 딸이 한 명 있을 뿐이다.) 프로이스의 지적과도 대략 일치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 후세의 지식으로부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이스는 선교사로서 당시에 가톨릭 포교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의 사명은 로마교황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일종의 간첩이었던 것이다. 『예수회연보イエズス会年報』와 『일본사日本史』는 모두 이러한 목적 하에 기술된 것이었다. 그가 수집한 정보와 기술은 정확했다. 만약 부정확한 정보를 퍼트린다면 선교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도요토미 가문 전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소문은 향간에 자자했다. 아마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응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히데요시의 아들에 대해 미심쩍게 여기고 있었고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아무도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히데요시는 히데요리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적극 알리려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입을 막기 위하여 많은 돈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데요리는 태어날 때부터 히데요시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은 파다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충] 히데요시가 유명한 인물인 만큼 그에 관한 연구도 많지만 그 가운데는 혼란스러운 내용도 많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나가하마 시절의 히데요시에게 실제 아들이 있었다는 설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향간의 속설인 이 친자설에 대해서는 이 책의 보론에서 따로 검토하고자 한다.(보론 1 히데요시 친자설에 관하여: 초카쿠(朝覚), 이시마쓰마루(石松丸), 양자 긴고(金吾,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

수태일(受胎日)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부부

다망했던 히데요시가 차차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차차가 히데요시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시기, 장소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차차가 히데요리를 수태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을까?

출산은 수태일로부터 약 266 일 이후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임신부는 예정일 15 일을 전후로 하여 출산한다. (지금은 최종 월경부터 헤아려 40 주=280 일에서 약 14 일을 뺀다. 구력으로 환산하면 9개월 간, 즉 29.5일(1달에 29일 혹은 30일이므로) 9배가 265.5일이다. 9 개월 분=10 개월째가 거의 266 일이다.) 예정일보다 15 일 이상 늦으면 태아가 너무 자라 버린다. 당시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모자 모두 위험해 처해 사망하는 일도 있다. 쓰루마쓰, 히데요리가 탄생하기 266 일 전, 그러니까 9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 쓰루마쓰의 출생일은 덴쇼 17(1589)년 5 월 27 일. 수태일은 덴쇼 16(1588)년 8월 27일 전후로 예상.

* 히데요리의 출생일은 분로쿠 2(1593)년 8 월 3 일. 수태일은 분로쿠 1(1592)년 11월 4일 전후로 예상.

수태일은 15 일을 전후로 예상할 수 있는데(히데요리의 경우는 10 월 20 일까지도 예상 가능. 분로쿠 1(1592)년 10 월은 30 일까지 있었으므로.), 쓰루마쓰를 임신했을 때에 히데요시는 교토 혹은 오사카 주변에 있었으므로 의혹이 생길 수 없지만 히데요리의 경우는 다르다.

히데요리 친자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사실(史實) 인식 그 자체도 달라진다. 친자설을 인정한다면 차차는 히데요시를 따라 히젠노쿠니 나고야성(肥前国名護屋城)에 체제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차차의 나고야 체제설이 무너지면 히데요리 친자설도 무너지는 것이다. 필자는 이하에서 차차가 나고야성에 없었다는 것을 논증하려 한다. 쓰루마쓰와 히데요리는 출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먼저 쓰루마쓰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II 도요토미 쓰루마쓰의 경우

민속사례: 임신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민속적 사례에 따르면 신사나 절에 들어 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었다. 아이가 생기도록 며칠 동안이나 밤을 지새며 신불에게 기도한다. 만원(滿願)에 이를 때까지 매일 독경을 외우고 종교적인 도취가 정점에 달하면 부인은 법열을 경험하고 이윽고 임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일본 각지에 전해지고 한국에도 전해진다. 치성을 드려 낳은 아이는 신불이 점지해 주신 아리라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

미야모토 쓰네히치(宮本常一)는 저서 『잊혀진 일본인忘れられた日本人』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이시(성덕태자)의 하룻밤 보보’(보보는 여자의 음부, 성교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가와치(河内) 다이시도(太子堂, 성덕태자를 기리는 불당)에서는 4 월 22 일 밤만큼은 남녀의 자유로운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岩波文庫 p.243) 이 날에 임신한 아이는 아버지를 알 수 없을 지라도 성덕태자(다이시)가 점지한 아이로서 소중하게 길러졌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의 탄생에 대해, 『다이헤이키太平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녀는 시기(志貴)의 비샤몬텐(毘沙門天)에 백일 간 기도를 드렸는데 몽상에 빠진 후 임신을 하였다. 이 아이의 아명은 다몬(비샤몬텐의 다른 이름은 다몬텐 多聞天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内)의 『후류시도켄덴風流志道軒伝』(호레키(宝暦) 13(1763)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후카이 진고자에몬(深井甚五左衛門)은 40 세이 이르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 깊이 걱정했다. 그들 부부는 아사쿠사 관음에게 37 일 동안 기도를 드리며 머물렀는데 기도 마지막날 밤 새벽에 남쪽으로부터 황금 송이버섯이 아내의 배꼽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후라이산진슈風来山人集』)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는 『일본의 역사를 다시 읽다日本の歴史をよみなおす』(ちくま文芸文庫 2005, p.150)에서 참배 장소가 종종 남녀들의 성 교섭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료로서 「이시야마데라엔기石山寺縁起」에 묘사된 암흑 속의 남녀 그림을 인용하기도 했다.

고쵸(弘長) 1(1261)년 11 월 3 일 야마토후쿠치인몬조(大和福智院文書, 『가마쿠라이분鎌倉遺文』 8732)에는 “나는 부처를 받들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와의 밀통에 집착 했다. (후략)”이라는 기술이 있다. 초월자를 받드는 몸이 여성과 밀통하고 게다가 여인에게 집착하는 이 같은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통상의 행위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일은 종종 있었다.

절과 신사에서 기도하는 날 수는 삼칠일, 즉 21 일인 경우도 있고 혹은 백일기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 한국에도 불임 여성이 백일기도를 드리는 일이 있다. 산 속 생활이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어쩐지 부족한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하거나 의존하는 방법이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종교적 도취를 동반한다. 신불과 일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아내는 밀통을 해도 죄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히데요시의 양자들과 오다 혈통

히데요시에게는 양자가 많이 있었다. 하시바 히데카쓰(羽柴秀勝, 쓰기次, 오다 노부나가 織田信長の 아들), 하시바 히데가쓰(앞의 사람과는 다른 인물, 아명 고키치小吉, 미요시 요시후사三好吉房의 아들), 고히메(五姫, ごう, 豪, 마에다 도시에에前田利家の 딸), 오히메(小姫, 오다 노부카쓰織田信雄의 딸), 고바야가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 기노시타 이에사다木下家定の 아들),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 미요시 요시후사三好吉房의 아들)등이 바로 히데요시의 양자들이다.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는 『다이코노테가미太閤の手紙』 p.226)에서 하시바 하치로 히데이에(羽柴八郎秀家, 우키타宇喜多)도 양자였다고 주장하는데 히데이에의 남편이므로 사위에 해당한다. 또한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야스(秀康), 히데타다(秀忠)를 양자로 삼아 곁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야스의 아들이 도요토미 가문을 승계한다면 도요토미 가문은 도쿠가와 가문이 되기 때문에 양자라기보다 인질에 가까운 것이었다. 니와 나가요시(丹羽長吉)의 경우도 그러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인질이였다. 도모히토신노(智仁親王, 덴쇼 7(1579)년 태생) 역시 히데요시의 양자였지만 히데요시가 직접 키우지는 않았다. 가마쿠라 막부의 신노장군처럼 황실가의 사람을 도요토미 가문의 승계자로 둘 작저이었으나(노부나가도 형 황실의 고노미야五宮를 양자로 두었다.), 이러한 방법은 무가 정권을 공가 정권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양자 가운데는 요절한 이가 많았다. 오히메小姫나 고히메豪姫에 대한 애정은 특별했다. 이에 대해서는 구와타 다다치카의 저서(p.218)나 후쿠다 치즈루의 저서(p.93) 등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고히메에 대한 히데요시의 애정은 남달랐다. 히데요시는 ‘고히메가 남자였다면 나는 그를 간파쿠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처 기타노만도코로 거쳐 내에는 이와 같은 양자들이 많이 있었다. 말하자면 보육원이나 유치원과도 같았다. 히데요시는 자식들에 관한 번민이 깊었다. 친자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했다. 쓰루마쓰와 히데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은 히데요시가 유전자 계승과 상관없이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피를

나누지 않은 자식들을 구박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고바야가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와 같이 두세 살 때부터 키운 아이들은 더욱 귀여워했던 것 같다. 히데요시의 편지 가운데는 고바야가와 히데아키의 이름이 빈출한다. 히데아키가 죽었을 때 기타노만도코로가 얼마나 슬퍼하였는지는 『도키요시키時慶記』에 잘 묘사되어 있다.(게이초 7(1602)년 10월 21일, 24일, 11월 8일, 12월 9일) 아이들도 기타노만도코로를 실제 어머니마냥 따랐다.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히데요리는 만 5세로 한참 귀여울 나이였다.

히데요시의 양자 채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친척으로부터 아이를 들일 때에는 누나의 자식(미요시 죠칸三好常閑)인 고키치히데카쓰(小吉秀勝), 히데쓰구(秀次) 두 사람을, 처 기타노만도코로의 조카(기노시타 이에사다木下家定) 히데아키를 양자로 삼았다. 미요시 죠칸과 닛슈(日秀)³ 사이에는 히데야스(秀保)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도요토미 히데나가(秀長)의 양자가 되었다. 미요시 가문의 세 아들 모두 도요토미 가문의 양자가 되었던 것이다. 친족의 자식을 양자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 때 미요시 가문(죠칸 계의 도요토미 가문)에는 미요시 가문을 이을 아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히데요시는 미요시 가문을 사유화한 것이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오다 가문에 대한 동경, 혹은 집착을 들 수 있다. 히데요시는 일곱 명의 양자 가운데 두 명을 오다 가문으로부터 들였다.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 쓰기마루(次丸, 히데카쓰秀勝, 오쓰기御次)와 딸 오히메(小姫, 信雄子)가 바로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었다. 쓰기마루는 덴쇼 7(1579)년경 만 12살에 입양되었다. 덴쇼 8(1580)년에는 오히메라는 이름으로 문서가 발행되기도 했다. 그것은 노부나가가 살해되었던 혼노지(本能寺) 사건(덴쇼 10(1582)년) 이년 전의 일이었다.

히데요시 측실 가운데는 산노마루도노(三丸殿)가 있다. 그녀는 오다 노부나가의 다섯 번째 딸이다. 프로이스의 『일본사日本史』가 인용한 1588년 3월 선교사 오르간티노의 서한(앞에서 언급)에는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두 딸을 자신의 첩으로 두었다고 되어 있다. 한 사람은 시바타 가쓰이에 아들의 아내, 다른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의 아내였다. 이는 산노마루도노가 예전에 시바타 가쓰이에 아들의 아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에는 차차로 착각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부나가는 그의 딸 한 명을 니와 나가히데(丹羽長秀)의 아들 니와 나가시게(丹羽長重)와 약혼시켰다. (「니와레키다이넨푸丹羽歷代年譜」 『간세이초슈쇼카후寛政重修諸家譜』 『大日

³ 히데쓰구가 태어났을 때, 닛슈의 나이는 34세로 고령이었다.(텐몬天文 3(1534)년에 태어난 것으로 가정) 히데쓰구 앞에도 일찍 죽은 자식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本史料』 덴쇼 10(1582)년 11 월 12 일, 결혼은 노부나가 사후에 이루어짐). 때문에 노부나가가 세력을 떨치고 있던 시바타 가문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킬 가능성은 높다. 또 오다 노부카네(信包, 노부나가의 동생)의 딸 히메지도노(姫路殿)도 히데요시의 측실이였다.(앞에서 언급한 와타나베 요스케의 책 참조.) 그러나 『게이즈산요系図算要』에는 히메지도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노부가네의 딸 중 하나가 노부나가의 양녀로 들어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노부가네의 딸 가운데는 히데요시의 조카 기노시타 도시후사(木下利房)의 첩이 된 이도 있다.(『기노시타 아시모리가후木下足守家譜』)

오르간티노⁴가 언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의 아내’로 여겨지는 인물은 노부나가의 장녀 고토쿠(五徳, 도쿠히메德嬉)이다. 그녀는 이에야스의 장남 마즈다히라(松平, 오카자키岡崎) 노부야스(信康)와 결혼했다. 노부야스가 죽은 뒤, 그녀는 마즈다히라 가문에서 나와 여생을 동생 오다 노부카쓰(織田信雄)와 보냈다. 그녀는 고마키나가쿠테(小牧長久手)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질로 교토로 갔다. 인질이 된 그녀를 히데요시가 자신의 아내처럼 대우하며 보호하려 한 것 같다. 히데요시는 조노스케도노(城之介殿, 노부타다信忠, 노부나가의 장남)의 아내도 측실로 삼았다고 하는데, 산보시히데노부(三法師秀信, 노부나가의 손자)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차차의 여동생, 즉 노부나가의 조카 오고(お江, 오고小督, 에요江与)도 히데요시의 양자이자 조카인 하시바 히데카쓰(羽柴秀勝 고키치小吉)와 결혼했다. (고키치 사후, 그녀는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부인이 되었다.) 히데요시는 오다 가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 노부타가(信孝)를 죽였다. 오다 사람들이 도요토미 가문으로 들어온다면 찬탈자로서의 비난은 일어날 수 있다. 히데요시는 그렇게 되기를 강하게 원했다.

덴쇼 16(1588)년 차차는 20살이었고 히데요시는 51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인 차차는 히데요시에 의해 자신의 아이를 가질

⁴ 오르간티노는 히데요시가 귀인의 딸을 양녀로 들여 그들이 열두 세의 나이가 되면 정부로 맞았다고 말한다.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는 『다이코노테가미太閤の手紙』(p.121 쪽, p.212)에서 마에다 도시에의 딸 마아(摩阿)는 ‘처음에는 양녀(15 세)였지만 언젠가부터 첩(21 세)이 되었다’ 말한다. 오르간티노가 말한 여성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오르간티노는 히데요시가 자신의 첩으로 오다 노부가쓰의 딸 오히메(小姫)를 가질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히메는 세 살 때부터 기타노만도코로에게 양육되어 히데요시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덴쇼 18(1590)년 1 월 21 일 그녀는 도쿠가와 히데타다(히데요시의 양자)와 혼약하고 다음 해에 불과 일곱 살의 나이에 죽는다. (『도키요시키時慶記』 1591 년 7 월 9 일) 오르간티노는 오히메에 대한 히데요시의 편애를 보고 오년 후에 그녀가 히데요시의 첩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죽고 만 것이다. 1587 년에 금교령을 내린 히데요시를 오르간티노가 싫어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머니로 선택되었다. 다른 어느 부인도 아닌 차차가 자신의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이다. 제 10 장에서 우리는 히데요시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태양의 자손이라고 말했다.(텐쇼 18(1590)년 조선사절에게 보낸 편지 등) 차차가 낳은 아이는 신불의 자손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큰 위화감은 없었다. 차차가 낳은 아이는 도요토미의 아이이자 오다의 아이였다.

40 대가 된 네(寧)는 출산이 곤란했고 조강지처인 그녀에게 아이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 무슨 이유때문인지 산노마루도노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차차는 달랐다. 아이 없이 사는 것보다 아자이(淺井), 오다의 피를 이은 자식을 낳고 싶었다.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비배우자간 수정’이라는 불임치료라고 여기면 되는 것이다.

임신

차차가 오사카 성에서 일찍부터 히데요시의 비호 하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쓰루마쓰, 히데요리 둘 중 적어도 쓰루마쓰는 히데요시의 허락 하에 다른 남자와 만든 자식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히데요시가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이는 밀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히데요시다 직접 지시, 명령한 것일 것이다. 보통의 부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당시 풍습을 변형시킨 것이라고 보면 그다지 특이한 것도 아니다.

철야기도와 같은 상황은 주라쿠 성(聚樂城)이나 오사카 성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성 내의 불당은 개인적인 기도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며 종교자들이 여기에 관여했다고도 예상할 수 있다. 종교적인 도취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승려 내지는 음양사였다. 앞에서 점술가와 같은 무명법사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음양사에 가까운 것 같다. (후술.)

상대로 삼고자 하는 남자는 신분이나 신원을 숨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도요토미 가문에 화근을 남기는 것이 된다. 친권자의 등장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는 히카루 겐지가 암흑 속에서 스에쓰무하나(末摘花)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물론 소설이지만 히카루 겐지는 상대 여성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같은 일이 차차에게도 일어났다. 차차가 동의해 준다면 제 삼자인 남자와 그녀가 얼굴도 모른 채로 성적 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마도 지금의 비배우자간 수정과 같은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비밀을 관리한다 해도 부자연스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히데요시의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했다. 쓰루마쓰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히데요리가 태어난 후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들 사건이 차차의 임신과 연관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료가 있을 리는 없다.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풍문과 소문에 대한 히데요시의 관리와 대책은 매우 엄격했다.

쓰루마쓰 출생 전의 낙서 사건

쓰루마쓰가 태어난 것은 덴쇼 17(1589)년 5 월 27 이다. 그의 출생 전에 주라쿠 성 미나미구로가네몬(南鉄門) 낙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시기에 혼간지(本願寺)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두 사건에 연루되어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형에 처해졌다. (덴쇼 17(1589)년 2 월 25 일~, 『다몬인닛키多聞院日記』, 『로쿠온니치로쿠鹿苑日録』, 『도키쓰네닛키言經日記』 후쿠다 치즈루의 책 p.86 참조.) 낙서 내용은 ‘전하(히데요시)에 대해 말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로쿠온 니치로쿠鹿苑日録』 덴쇼 17년

3 월 2 일 누군가 간파쿠(히데요시)가 거주하는 성의 미나미구로가네몬에 낙서를 했다. 그것은 히데요시에 대한 특정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낙서 혐의가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그에게 코가 잘렸고 어제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오늘은 거꾸로 머리를 치박혀 죽었다. 오만도코로(大政所, 히데요시의 어머니)는 그들 일곱 사람의 용서를 구했다. 여섯 사람은 수레에 있었고 나중에 기둥에 묶여 찢려 죽었다. 이 일곱 명 외에 한 사람은 오사카로 도망쳤지만 사오일 만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신의 전생에 대한 업을 깊이 탄식했다. 나는 아무 것도 도울 수 없고 한숨만 쉴 뿐이다. 그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들은 손과 발 그리고 목에 수갑을 차고 있다. 그들은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러한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위의 기록을 보면 여섯 사람이 수레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수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후에 일어난 히데쓰구 처자 처형 때는 서너 명의 사람이 일곱 대의 수레에 탔다.(関白手掛衆「車」注文, 후지타 쓰네하루藤田恒春『豊臣秀次の研究』p.267) 수레라는 것은 죄인을 태워 조리돌리는 것으로 죄인들은 결국 책형 당한다. 또한 위의 기록에는 오만도코로가 사람들의 용서를 구했다고 되어 있다. 프로이스의『일본사日本史』V - p.261)에는 ‘폭군의 어머니(오만도코로)는 히데요시에게 부탁하였다. 그녀는 노여움을 산

승려와 같은 종파에 속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승려가 처벌되지 않도록 간청하여 그 승려에 대한 분노는 잠재웠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온 무고한 73 명의 사람들을 불전 앞에서 책형 시키고 그들의 집도 불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로쿠온니치로쿠鹿苑日録』를 해석하면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은 혼간지에 속해 있던 자로서 오만도코로의 호소에 의해 구명되었지만 나머지 여섯 명은 처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오사카에서 살해되었다.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 덴쇼 17년 2월 28일

지난 25 일 밤, 누군가 번소(番所)의 흰 벽에 낙서를 했다. 그 내용은 간파쿠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었다. 경비를 담당하던 열 명은 감옥에 들어갔다. 여자는 산 채로 잡혔지만 요즘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우울하다. (중략)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 덴쇼 17년 3월 18일

25 일 밤에 일어난 주라쿠 성 사건과 관련하여 열 일곱 명의 문지기(番衆) 중 일부는 코가 잘리고, 또 일부는 귀가 잘렸다. 결국 모두 책형에 처해졌다. 그 가운데 좀 잘 생긴 젊은이가 있었다 한다.

간파쿠에게 지목된 어떤 사람은 오사카 덴만혼간지(天滿本願寺)에 숨어 있었다. 그는 절에서 피난하기를 원했다. 간파쿠는 그것을 듣고 격노했다. 거기에 많은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을 사람들이 밀정에 의해 63 명이 잡혔다고 들었다. 그들은 절 도지(東寺)앞에서 처형당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 소녀까지 처형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만 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위의 글을 보면 같은 시기에 두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주라쿠 성에서, 다른 하나는 오사카에서 발생했다. 후자, 즉 혼간지를 찾은 낭인(봉록을 잃고 섬길 주인이 없는 사무라이) 사건에서는 '정탐하여 63 명을 초치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밀정을 풀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63 명을 붙잡아 이들을 책형에 처했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 책형에 처할 사람을 선정했다. 운수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 소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의심되는 자들 가운데 일정한 확률로 처형자가 선정되어졌던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지기가 책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2 월 29 일 이후 처형당했다. (『로쿠온니치로쿠鹿苑日録』) 먼저 코가 잘리고 다음 날에는 귀가 잘렸다. 3 월 2 일에는

공개 처형되었다. 거꾸로 처박혀 책형 당한 것이다. 그 형벌이 잔혹하면 할수록 소문이 크게 났다. 절대자에 대한 비판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형벌을 통해 철저하게 각인시켰다. 그것은 공포 정치, 밀고 사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생각한 것을 입에 담기에는 주저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명칭하게 처신했다가는 어떠한 엄벌을 받을지 모른다. 이러한 풍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일본인이 읽을 수 없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아이의 탄생과 금 배분

반면 히데요시는 귀족과 승려들에게 많은 금을 배분하였다. 프로이스의 기록에 의하면 쓰루마쓰 출생 시, 즉 덴쇼 17(1589)년 5 월 27 일에 히데요시는 13 만 크루제이로(cruzeiros, 약 1량 동전 3천 개)⁵를 지참했다고 한다.

쓰루마쓰 탄생을 축하하는 기록은 일본인이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생 7 일 전에는 신흥 귀족들에게 금을 배분하였다. 이는 쓰루마쓰 탄생 전의 일로, 태어날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귀족으로 진입한 것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신흥 귀족에게 금을 배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히데요시의 입장에서는 미리 자신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오유도노노우에노네키오湯殿の上の日記』(8-p.237)

덴쇼 17년 5월 20일

간파쿠는 신흥 귀족에게 돈을 주었다. 로쿠노미야 (六の宮, 도모히토 황세자, 히데요시의 양자)가 주라쿠 성에 왔다. 7 명의 귀족, 기쿠테이(菊亭), 가주지(勘修寺),

⁵ 포르투갈의 기본 통화는 레알(real)로 처음에는 은화였다가 나중에는 동화가 사용되었다. 크루제이로는 금화 내지 은화이다. 로드리게즈는 '1 크루제이로, 포르투갈 금화는 지나의 1 량(다이스)과 같다'고 하며, 프로이스는 '은으로는 44 다이스, 내지 44 크루제이로에 해당하는 황금 1 개'(프로이스 『일본사日本史』 V-p.316. "HISTORY DE JAPAM"C, 80, V-p.606, 후술) 이라고 썼다. 크루제이로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六・一七世紀イエズス会日本報告集』第1期 第2卷

1568 년 10 월 20 일 알메이다 수도사가 카네이로 마카오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로 협의하였고 이미 건설용 자금으로 4500 크루제이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一五八〇年度 日本年報』

1580 년 10 월 20 일 아리마(有馬)가 열세가 되어 절박했을 때, 사제가 구원했다는 기사. "사제는 다량의 식료를 구입하고 매일 수도원으로 모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불 탄 성에서도 망친 병사들을 구하도록 명했다. 이들에게 가능한 한의 음식과 금전을 주었다. 또 이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배를 이용하여 모아 두었던 납과 질산칼륨, 식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쓴 돈은 약 600 크루제이로였다."

이를 히데요시의 13 만 크루제이로와 비교해보자. 13 만 크루제이로는 교회를 30 개나 신설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가난한 이들에게 납과 질산칼륨, 그리고 음식을 베푸는 자리를 200 회 정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나카야마(中山), 히노(日野), 에몬노카미(衛門督), 가미레이제이(上冷泉), 니시노토인(西洞院) 등도 성에 왔다. 로쿠노미야에게는 200 매의 금과 1000 매의 은을 베풀었다. (1 매는 165g)가주지, 기쿠테이에서부터 에몬노가미까지는 백은 10 매, 니시노토인, 니시노도, 가미레이제이에게는 5 매의 은을 주었다.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 덴쇼 17년 5월 24일

간파쿠는 지난 20 일 주라쿠 성에서 다이묘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다. 금과 은은 모두 천 매 이상이었고 이는 그들 모두에게 주어졌다. 쓰쓰이 시로(筒井四郎)는 은 300 매를 받았다. 간파쿠는 금과 은을 배분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대접였다.

히데요시는 5 월 20 일에 아들 출생을 축하하는 연을 열었다. 로쿠노미야는 도모히토친왕(智仁親王)으로 히데요시의 양자였다. 이 때 황금 200 매, 백은 1000 매라는 거대한 돈을 풀었다. 히데요시는 오다와라 공격 때 군인과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황금 만 매를 사용한 적이 있다. 황금 1 매는 순금(90% 이상)으로 무게는 44 몬메(匁, 1 匁=3.75g, 금 한 냥의 60/1) 정도로 1 매는 약 10 량이었다.(永原慶二氏座談会発言『有鄰』420) 히데요시는 로쿠노미야에게 말했다. “아기가 곧 태어난다. 네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생기는 것이다.”

5 월 24 일의 『다몬인닛기』에는 다이묘에게 금과 은을 베푸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향연의 이유는 적혀있지 않다. ‘야단스러웠던’ 이 향연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리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베풀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있다. 상대방에게 금과 은을 주면 답례가 돌아오기에 베푸는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 답례는 출생 축하를 겸한 것이었다.

5 월 27 일, 아이가 태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출생을 축하했다. 먼저 다음 날에 천황이 도검을 하사했다. (『오유도노노우에노닛기お湯殿の上の日記』 5 월 28 일) 황태후와 후궁은 배내옷을 보냈다. (『오유도노노우에노닛기お湯殿の上の日記』 5 월 30 일) 출생 후 7 일째 되는 날 밤에 축하연을 열었다. 그 사이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 당일 발표하였다. 6 월 1 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출생 후 7 일이 지나기까지는 흥일도 끼어 있어서 인사를 피하기도 했지만 7 일째 되는 밤이 지나자 귀족들이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요도까지 가기도 했다. 7 일에는 다이가쿠지도노(大覺寺殿, 구쇼호친왕空性法親王)가 요도를 방문했다.

6 월 6 일, 요도에는 축하 인파로 붐볐다. 많은 승려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을 보냈다. 50 살이 넘는 간파쿠가 보물과 같은 귀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마을 안팎에는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니치요슈日用集』前田本, 6월 6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교토로 향했다. “간파쿠는 물론 요도도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이에타다닛기家忠日記』덴쇼 17년 6월 3일) “간파쿠는 이에야스에게 은 이천 매와 금 이백 매를 주었다.”(『이에타다일기家忠日記』덴쇼 17년 6월 7일) 6월 7일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 대해 축언했고 다량의 금은을 받았다. 혼간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어졌다.

『도키쓰네쿄키言經卿記』 덴쇼 17년 6월 13일

교문(興門)이 찾아와 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의 절로 갔다.

『도키쓰네쿄키言經卿記』 덴쇼 17년 6월 15일

교사 및 고주라는 큰 스님과 혼간지에서 온 새로운 스님, 교쇼지에서 온 사초 스님, 이들 세 스님은 새로 태어난 생명을 축하하기 위해 길일을 택해 요도 성으로 갔다. 교사는 히데요시와 그의 아들에게 50 매의 은과 금 검을 선물했다. 고주 역시 30 매의 은과 금 검을 선물했다. 사초는 10 매의 은과 금 검을 선물했다.

마쓰라⁶시키부노쿄호인(松浦式部卿法印)은 검과 5매의 은을 보냈다.(松浦文書)

『도다이키當代記』도 다이묘와 쇼묘(小名, 다이묘가 되지 못한 사무라이), 교토 사카이를 비롯한 모든 상인들이 히데요시에게 물건을 진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이묘들은 이미 수일 전에 히데요시로부터 많은 돈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이들은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준비해 보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궁금히 여기기보다 원을 넘긴 히데요시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난 기적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또한 『니치요슈日用集』에 의하면 차차의 남동생, 소교쿠인슈소(蒼玉寅首座, 浅井大膳介政重) 즉 외삼촌도 백은 천량이라는 큰 금액과 생견 수십 필을 축하의 의미로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때의 축하 장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히로이(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는 전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히로이가 태어났을 때 히데요시가 오사카에 없었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아이의 출생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⁶ 「マツウラ」となっていますが、「マツラ」ではないでしょうか。

때에는 작위적으로 축하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

어머니를 부정당한 차차(요도도노), 이와 대비되는 쓰루마쓰 어머니 네(기타노만도코로)

생모 요도도노(아자이 씨)는 쓰루마쓰의 어머니(육아권리를 가진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상한 것일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오다와라 공격 때 히데요시는 요도도노에게 오다와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쓰루마쓰는 덴쇼 17(1589)년 5월 27일에 태어났고 오다와라 출진 명령을 받은 것은 다음 해 5월이다. 이 때 쓰루마쓰는 만 한 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다. 지금의 감각으로 본다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기 힘든 어린 나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관동까지 출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여자에게 위험한 전장으로 가게 한 예는 거의 없다. 오다와라는 교토에서 멀고 전투는 장기간 이어졌다. 고귀한 신분의 여성들이 스스로 양육을 맡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일도 없다. 어머니 차차는 불만이었다. 이후 그녀는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모유로 키웠다. 육아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다. 오다와라 참진 명령에 저항은 하였겠지만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요도도노(차차)는 히데요시 후실 조직 가운데 위에 있었지만 어머니, 엄밀한 의미로 ‘유일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따로 있었다.

기타노만도코, 네(寧)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였다. 앞에서 히데요시의 양자들을 열거한 바 있다.(이 책 p.616) 아이들에게는 실제의 부모가 있지만 양자가 된 이후에는 새 부모가 생긴다. 당연히 아버지는 히데요시였고 어머니는 항상 기타노만도코로였다. 쓰루마쓰도 예외는 아니었다. 쓰루마쓰는 다른 입양아의 경우와 같았다.

히데요시의 편지 가운데는 “두 어머니에게”(대라마문서寺村文書, 『다이코노테가미太閤の手紙』 76) 라는 것이 있다. 두 어머니가 있었고 이 중 차차는 ‘오후쿠로사마’, ‘오카카사마’ (『다이코노테가미太閤の手紙』 p.267, p.284)였지만 항상 우위에 있었던 것은 기타노만도코로 네였다.(『다이코노테가미太閤の手紙』 p.284)

차차의 오다와라 행은 기타노만도코로를 통해 명령이 내려졌다.(이 책 p.673) 후실 조직에서 그 우두머리는 기타노만도코로였고, 그보다 아래에 있던 차차는 기타노만도코로로부터 명령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⁷

⁷ 후쿠다는 요도도노가 기타노만도코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히데요시가 살아 있는 동안, 기타노만도코로는 후실들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었다. 프로이스가 여왕이라고 부른 인물은 기타노만도코로가 유일하며 차차를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다. 차차가 오사카 성에서 실권을 잡는 것은 히데요시 사후 기타노만도코로가 오사카 성을 나간 뒤였다. 차차의 아이 히로이의

여기에서 히데요리 탄생을 살펴보기 전에 요도도노(차차, 아자이 씨)에 대해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녀의 첫 번째 아들 쓰루마쓰를 보호하던 사람은 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였다. 프로이스는 “쓰루마쓰의 육아와 돌봄을 총신 아사노 단쥬(淺野彈正, 나가요시長吉=나가마사長政)에게 부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이 책 p.611) 아사노 나가마사는 네가 자란 아사노 가문 출신이며 네와 (의)형제이다. 생모인 차차는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쓰루마쓰 양육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다. 육아의 실권도 네에게 있었다.(한편, 쓰루마쓰의 보호를 이시카와 미쓰시게(石川光重)가 담당했다는 설도 있다. 구와타의 책 p.192 참조. 이시카와는 미노 출신이다. 쓰루마쓰의 보호는 복수의 사람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히데요리(히로이)의 경우, 가타기리 가즈모토(片桐且元)가 그 보호 역을 맡았다. 그는 차차의 아버지 아자이 나가마사를 섬겼던 구신 가타기리 노부사다(片桐直貞)의 아들이었다. 아사노 나가마사와는 달리 차차 측근의 노신이며 그녀의 의향을 잘 살펴 줄 인물이었던 것이다.

7 월 11 일 오다와라 성을 함락시킨 이후, 히데요시는 오슈(奥州)로 향했다. 요도도노(차차)는 7 월 15 일에 오다와라를 떠났다. 히데요시는 북쪽으로 향하고 그와는 반대로 차차는 서쪽으로 갔다. 그녀는 쓰루마쓰가 있는 교토로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차차(요도도노)가 쓰루마쓰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쓰루마쓰의 어머니가 차차가 아니라 네, 즉 기타노만도코로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차차가 없는 동안 쓰루마쓰는 주라쿠 성에서 기타노만도코로에 의해 양육되었다.

Ⅲ 히로이(도요토미 히데요리)의 탄생

다음으로 히데요리 탄생에 대해 살펴보자. 차차는 히데요시의 허락을 완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독단에 가까운 형태로 히로이(히데요리)를 가진 것 같다. 다시 한 번 민속 사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도 기타노만도코로가 지은 것이다. 요도도노의 임신소식이 기타노만도코로를 통해 히데요시에게 보고된 점, 오다와라 출진 명령이 기타노만도코로를 통해 전달된 점 등은 두 사람의 상하관계를 반영한 일관된 움직임이었다.

한편, 요도 성은 차차의 임신(쓰루마쓰)을 계기로 지어 졌다고 하지만(후쿠다 pp.90-91), 히데요시가 태어날 아이의 성별도 모른 채 새로운 성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요도 성이 출산을 위해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차차는 여기에서 3 개월 정도만 머물렀다. ‘요도’라는 이름이 후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은 곧 무너졌고 지금도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요도 성은 여관과 같은 작은 규모의 성이었다. (사실, 요도 성은 두 곳으로 도쿠가와 시대의 것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

민속사례

A 오이타(大分) 지방에서 온 떠돌이 한 사람이 약 2 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 어느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보아도 그 아기는 떠돌이를 닮았다. ‘카카다이묘진 (かか大明神)’이라는 말처럼 어머니는 큰 신과 같다. 남편을 배신해도 이혼하지 않았다.(후쿠오카현福岡県, 이라하라시伊良原市)

B 이 마을에는 그의 형제 누구와도 닮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그 아이와 꼭 같은 사내가 있었다.(후쿠오카현福岡県, 예가와시江川市)

C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다른 집의 남자와 닮아갔다. 똑같다. 꽃 도둑은 팬찮지만 씨 도둑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발각된다.(히다시飛騨市 히토에가네一重ヶ根)

비배우자간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때때로 있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자식으로 키워졌다.

요도도노의 히젠나고야 성 부재

차차가 히데요리를 수태했다고 여겨지는 날 밤에 히데요시는 차차와 함께 있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분로쿠 1(1592)년 4 월에 나고야 성에 도착하였으나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사카로 돌아갔다. 그는 또 10 월 1 일에 오사카를 떠나 히젠 나고야로 향했다.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에는 “10 월 1 일 오늘 아침 다이코는 서쪽을 향해 출발, 그날 저녁에 효고에서 묵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월 30 일에 하카타(博多)에 도착하여 11 월 5 일에는 나고야에서 다도를 개최하였다. (「宗湛日記」, 「博多記」, 「国書遺文」, 『史料綜覧』) 히데요리가 태어난 것은 분로쿠 2(1593)년 8 월 3 일이므로 수태일로 예상되는 날짜는 11 월 4 일 전후이다. 출산이 늦어졌다고 가정하여 보름을 앞당겨 보아도 10 월 20 일 정도가 수태일이다. 또 정자와 난자의 생존 기간을 고려해 보아도 10 월 1 일 이전에 임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차가 히데요시와 함께 나고야로 가지 않은 이상, 그녀가 히데요시의 아이를 임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차는 히젠 나고야로 가지 않았다. 이는 통설이다. 그녀는 오사카 성 니노마루(二の丸)에 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니노마루도노라고 불리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렇게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히데요리 친자설을 주장하는 후쿠다 치즈루 씨, 오와다 테즈오 씨는 차차가 나고야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연구자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나고야 성에서 온 편지’(도쿄대학 사료편찬소 등사본, 위 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를 보자. 사다케(佐竹)가신 히라쓰카

다키토시(平塚淹俊)의 일기(기행문)를 보면 히데요시가 나고야에 도착했을 당시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묘사한 부분이 있다. 또 이 일기에는 두 종류의 사본이 있다. (1)은 사료본이다. 사가현교육위원회 『特別史跡名古屋城跡並びに陣跡』(1985)에도 인용되어 있다. (2)는 구와다 다다치카가 인용하여 『豊臣秀吉研究』에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본이다. 히라쓰카 다키토시 일기에 기록된 히데요시의 나고야 도착 상황을 살펴보자.

분로쿠 1(1592)년 4 월 25 일 다이코가 나고야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의 행진을 보기 위해 나고야 성으로 갔다. 그는 거짓 콧수염을 달고 긴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겨 이를 같이 묶고 있었다. 수염과 머리는 새까만 검은 색이었다. 오다와라 정복 때 다이코는 흰 거짓 콧수염을 붙이고 있었다고 우리는 들은 바 있다. 일곱 대의 가마는 실로 화려했다. 이를 형용할 단어가 없을 정도였다.

(1) 모두 히데요시 행렬에 요도도노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코가 소슈(相州, 사가미지방의 오다와라)에 갔을 때, 요도도노도 동행했다. 오다와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다이코는 요도도노가 그에게 행운을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때에도 요도도노와 함께 온 것일 것이다.

(2) 히데요시 행렬에 요도도노가 함께 있었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나는 실제로 요도도노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다이코가 소슈 오다와라로 올 때 요도도노도 함께 왔다. 다이코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요도도노와 동행한 것이 복을 불러왔다고 생각했다.

차차가 히데요시와 함께 나고야로 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고야로 들어왔을 때, 히데요시는 빗질하여 단정하게 매만진 머리모양을 하고 득의양양한 행렬을 펼쳐보였다. 말기수 50 명은 다홍색 하오리를 입고, 그 뒤를 이은 75 필의 말도 중국비단, 비단, 금실로 짠 비단, 그 외에도 금은으로 만든 마갑과 마면 등을 화려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 행렬을 본 다키토시(淹俊)는 이에 대한 소문을 글로 남겼다. 히데요시가 요도도노와 함께 이동했다는 소문 가운데, (2)에서는 실제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1)의 문장과 (2)의 문장은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고 구성도 닮아 있다. (1)에는 요도도노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문장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필사하는 가운데 빠진 것이라 추정된다.

차차가 있었다면 그 요란한 행렬에 참가하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차차를 데리고 간 의미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제일

처음으로 이 기사를 소개한 이와자와 요시히코(岩沢愿彦) 「肥前名護屋城図屏風について」 『日本歴史』 (260, 1971)도 요도도노 동행설은 ‘오전(誤傳)’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나카무라 다다시(中村質)도 이 의견을 따르고 있다. (『文禄・慶長の役城跡図集』 1985). 이 두 사람의 지적처럼 소문은 와전된 것이다. 히데요시와 관련한 이러한 식의 오전과 오보는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딸의 출생 등. 이 책 p.638) 요도도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이러한 소문을 보더라도 요도도노가 나고야에 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처음부터 끝까지 히데요시와 동행한 여성은 교고쿠 타츠코(마쓰노마루도노)였다. 다쓰코는 히데요시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측실이였다. 「다이코사마군키노우치 太閤さまくんきのうち」 『太閤史料集』 p.216』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기)의 분로쿠 1 (1592= 덴쇼 20) 년 3월 29 일 기록을 보면 이 날 히데요시는 시카마즈(飾磨津)에서 나고야로 오는 뱃길에서 오카야마(岡山)에 들러 하룻밤 머문다. 다쓰코는 다른 배로 부젠 가타가미(片上)으로 가서 다음 날 오카야마에 도착했다. 8 월 14 일에 출발한 히데요시보다 이틀 빠른 8 월 12 일에 다쓰코는 나고야를 떠났다. 히데요시는 8 월 25 일 오사카에 도착했고 그녀는 다음 날인 26 일에 오사카로 돌아왔다. “교고쿠사마는 8월 12일 저녁 나고야를 떠나 26일에 오사카에 도착했다. 교고쿠사마는 관동고진關東御陣(오다와라 공격)과 치쿠시고진筑紫御陣(시마즈공격島津攻撃)에서 히데요시를 받들며 따뜻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나고야 동진(同陳⁸)의 공적을 인정받아 교고쿠사마는 오사카 성 니시노마루에 새 궁을 하사받아 그곳으로 옮겨 살았다.”(「다이코사마군키노우치」 『太閤史料集』 p.216) 요도도노가 나고야에 갔다면 그 기록이 「다이코사마군키노우치」 에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⁹

『부젠오보에가키豊前覚書』에 따르면 나고야 성에는 ‘미다이도코로(御たい所)’와 ‘고조스(かう蔵主)’가 있었다. 미다이도코로는 다쓰코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기타노만도코로, 즉 네는 히데요시가 오사카에 부재하는 동안 관리 감독을 맡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나고야 성에도 대관(代官)을 둘 필요가 있었는데, ‘고조스(かう蔵主)’가 이를 맡았다.

나고야 성 내의 야마자토마루(山里丸)에 고타쿠지(広沢寺)라는 절에는 히데요시의 측실 고타쿠노 쓰보네(広沢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눈에 병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⁸ 전진까지도 함께 행동했다고 하는 뜻.

⁹ 요도도노가 출산한 달은 7 월이라는 말이 있다. 히데요시가 오사카에 있던 시기를 역산한 것으로, 이는 요도도노가 나고야에 가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쓰코도 눈병 치료를 위해 아리마(有馬)온천에 간 적이 있어 이 여성이 다쓰코가 아닐까 여겨진다. 야마자토마루는 혼마루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새 거처로 사용되었다. 그 곳에 산 여성은 다쓰코였다. 고타쿠노 쓰보네와 다쓰코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¹⁰

히라즈카 다키토시(平塚淹俊) 일기에는 실제로 나고야에 머물렀던 교고쿠 다쓰코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차차와 교고쿠 다쓰코를 혼동한 것 같다. 히데요시의 목적지는 나고야가 아니라 명나라였다. 그는 차차가 오다와라 전투의 승리와 행운을 가져왔다고 여기고 명의 수도에서 황제를 포위한 후 차차를 부를 생각이었을 것이다. 오다와라에서의 경험을 참고하면 처음부터 차차와 동행할 필요는 없었다. 중간 경유지 나고야에 있으면서 도항할 수 없었던 것은 예상외의 일이자 본의 아닌 일이었다. 길례를 중시하는 습관에서 본다면 도중에 돌아가는 것은 매우 불길한 경우에 해당한다.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었다. 차차는 나고야에 오지 않았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히데요시는 차차의 임신 소식을 오사카에서 온 사자의 보고와 기타노만도코로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다. 나고야에 차차가 왔다고 보는 논자들은 차차가 언제 오사카로 돌아갔으며 왜 도중에 차차를 돌려보내는, 소위 길례에 반하는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요도도노(차차)가 히젠 나고야에 갔다고 하는 후쿠다 치즈루 씨의 논문은 다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 째 『군키노우치くんきのうち』 기사 가운데 출진식의 기타노만도코로를 차차로 보았으며, 둘 째 출진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이 곧 참진(하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해석의 오류이다. 기타노만도코로가 네일 리는 없으며 출진식에 참가한 다수의 여성이 히젠까지 하향할 이유도 없다. 이는 후쿠다 씨의 오류라기보다 선행연구 구와타 다다치카 씨의 논의를 답습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기로 한다.(보론 2 군진과 측실-차차의 행동과 나고야 이 책 p.672)

오사카의 니노마루도노

차차는 임신했을 무렵(분로쿠 2(1593)년 5 월 22 일) 니노마루도노라고 불렸다. 다음은 기타노만도코로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편지이다.

¹⁰ 보통 고타쿠노 쓰보네는 나고야 쓰네노부(名護屋経述)의 딸 히로코(広子)인 것 같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설을 근거로 삼았다. 新日本文学大系『太閤記』에는 요도도노 및 교고쿠도노가 모두 히데요시와 함께 오다와라와 나고야에 동행했다고 주기(注記) 표시되어 있다.(p.479) 그러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책은 오차(おちゃあ, 기타노 만도코로의 시녀)를 요도도노로 혼동하는 등(권말 인명 색인),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나는 요즘 기침을 하여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회복 후 처음으로 쓴 편지이다. 나는 니노마루도노가 회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바 있고, 그것이 미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었다. 다이코의 자식은 쓰루마쓰였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니노마루도노가 가진 아이는 그녀만의 아이라 여기는 편이 좋겠다. (佐賀県立博物館所蔵文書『太閤の手紙』 講談社学術文庫 p.225)

히데요시는 편지에서 먼저 명나라의 사자가 나고야 성에 온 것과 교섭 경위에 대해 썼다. 공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 부분은 편지 여백에 추가로 쓴 것이다. 이 추신은 소소한 일, 사적인 일을 쓴 것으로 차차의 임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차차의 임신을 결코 사소한 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차의 임신을 알게 된 히데요시는 그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을 뜻하는 말 ‘미모치(身持ち)’는 ‘미오모(身重)’와 같은 말이다. (『운포이로하슈運歩色葉集』 참조.) 『닛포지쇼日葡辞書』에도 같은 용례를 들고 있다. 편지에서 말하는 니노마루도노란 당연히 오사카 성 니노마루에 있던 차차를 가리킨다.(구와타 p.225) 만약 니노마루가 나고야 성에 있었다면 히데요시는 그녀의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회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쓰고 있다. 차차의 안산을 기원할 때에도 ‘오사카 니노마루사마의 몸 상태가’라고 쓰는 등(大阪城天守閣所蔵文書) 일관되게 ‘니노마루도노’라고 쓰고 있다.

10월 1일, 히데요시는 차차를 남겨두고 오사카를 떠나 30일에 하카타에 도착했다. 때문에 차차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날짜(분로쿠 1(1592)년 11월 3일) 전후, 15일 이내에 차차와 히데요시가 동침할 수 없었다. 히데요리가 친자설에 결정적인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히로이는 7월에 태어났다고 한다. 소문 가운데는 태어난 아이가 여자라는 말도 있었다. 『도키요시키時慶記』 7월 13일자에는 ‘오사카 요도도노가 출산한 달’이라는 기록이 있고, 7월 16일자에는 ‘오사카 성의 요도도노가 공주를 낳았다 한다. 이는 그냥 소문이다.’(후자의 기술은 말소되어 있다.)는 말도 있었다.

차차의 출산예정일은 그녀의 몸 상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오사카에서 히데요시와 함께 있던 시기부터 역산하는 방법도 있다. 차차가 출산한 것은 8월 3일이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

‘회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히데요시가 편지에 썼으니, 차차의 임신을 히데요시가 안 것은 임신 7개월 쯤 되는 달이다. 이 편지에 의하면 히데요시가 차차의 회임 소식을

정식으로 접한 것은 네가 보낸 소식을 통해서이다.¹¹ 히데요시가 임신 소식을 접한 것은 꽤 늦은 시점이었던 것이다. 임신 3, 4 개월째에 이미 알 수 있을 것이고, 사령본부 나고야와 오사카 사이에는 거의 일상적으로 통신(전마)가 있었다. 특히 길보인 경우에는 빨리 전해지는 법이다. 차차의 회임 소식이 늦게 전해졌다면 이는 그 사실이 길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월 하순, 기타노만도코로의 하녀 히가시도노(東殿, 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繼의 어머니)¹²가 나고야까지 왕복했다.(葉上文書 5 월 27 일 ふく宛秀吉書狀『太閤書簡』) 그녀는 기타노만도코로의 편지를 가지고 요도도노의 임신을 보고했다. 5 월 27 일 편지에는 ‘히가시가 오사카로 돌아갔다’ ‘히가시가 명의 사신과 노를 보았다’고 되어 있다. 명의 사신이 도착한 5 월 15 일 이후, 아마 앞의 편지를 썼던 5 월 22 일을 포함하여 시녀 히가시는 나고야에 있었다. 15 일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 히데요시는 기침이 심해 편지를 쓰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다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이러한 표현은 즉답을 미룬 것에 대한 사과와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기타노만도코로(네)에 대한 일종의 미안함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노 사다카게의 『시오지리塩尻』26(후세의 기술, 『日本隨筆大成』14, 전자 책)에 따르면 히가시, 즉 오타니 요시쓰구의 어머니는 기타노만도코로의 어머니 아사히(朝日)의 조카였다고 한다. 기타노만도코로와는 종자매인 셈이다. 나가하마 성 시대부터 기타노만도코로를 보좌하던 그녀는 스키하라의 일족이 아닌가 여겨진다.(이 책 p.669) 그녀는 기타노만도코로가 가장 신뢰하던 인물이었다.

히로이는 히데요시의 친자식이 아니다

히데요시가 그의 아내 네에게 어떤 회신을 보냈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¹¹ 왜 차차가 아닌 네가 히데요시에게 연락을 했을까. 오사카 성 후궁의 일에 관해서는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대표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7 월 8 일 ‘오사카 니노마루사마의 안산 기도를 쇼샤잔(書寫山)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남아 있다.(大阪城天守閣所藏文書) 이 편지를 발행한 다자이노소치호인간쥬(太宰師法印歡仲)는 기타노만도코로가 관할하는 오사카 나고야 간 역제(통신전달 운송, 텐마) 실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오사카 나고야 간에 전마(공용마)를 사용하려면 기타노만도코로의 허가(도장)가 필요했다.(덴쇼 20(1592)년 8 월 24 일 히데쓰구 朱印狀, 『嚴島文書』『古蹟文徴』) 간쥬는 그 책임자였다.(中野等『豊臣政権の朝鮮侵略と太閤検地』 p.26) 『高野山文書・続宝簡集』 4 월 5 일자 편지를 통해서도 간쥬가 기타노만도코로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사카 성에 있으면서 기타노만도코로의 의향을 반영해 실행하는 인물이었었던 것으로 이 안산 기도도 차차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실의 우두머리이자 히데요시 부재시 오사카 성주로 있었던 기타노만도코로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¹² 히가시가 오타니요시쓰구의 어머니라는 것은 『가네미코키兼見卿記』분로쿠 2(1593)년 1 월 13 일(Biblia [텐리 대학 도서관 게시판] 118, 2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아사히(네의 어머니) 친족이었다는 것은 『교고갓키校合雜記』(『関ヶ原合戦資料集』『関原軍記大成』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歴史読本』1997 년 7 월호, 같은 책 2008 년 9 월호 「大田好繼の生涯」참조.

“우리(자신과 네)는 우리들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의 자식, 다이코의 자식은 쓰루마쓰였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차차(니노마루도노)만의 아이라 여기도록 하자.”

이 추신으로 문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일까.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죽은 아이 쓰루마쓰를 추억하고 있다. 쓰루마쓰를 대신할 우리의 아이, 다이코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번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는 히데요시 자신은 물론 기타노만도코로도 그다지 관여하지 말고 니노마루의 의사에 자유롭게 맡기자는 뉘앙스를 띄고 있다. 히데요시, 기타노만도코로와는 상관없는 아이인 것 같이 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

구와타 다다치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히데요시는 니노마루도노가 임신한 것을 기뻐했다. 특별히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아들 쓰루마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 것은, 마음속의 기쁨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태아가 니노마루도노의 아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이가 건강하기를 절실하게 원했다. (구와타 다다치카 『太閤書信』 p.262) 구와타의 지적처럼 히데요시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

한편 후쿠다 치즈루는 히데요시 편지 문맥을 “차차의 임신이 순조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기타노만도코로)도 그런 사실을 알아 두는 편이 좋다. 다이코의 자식은 쓰루마쓰였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 태어날 아이는 차차의 아이로 해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며, “어머니 밑에서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하고 히데요시는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후쿠다 치즈루 『淀殿』, p.129)라고 분석했다.

후쿠다의 경우에는 히데요시가 임신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해석하지 않고 순조롭다고 해석하였다. 무로마치시대에서 ‘우리’는 단수로도 복수로도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히데요시가 처 네(기타노만도코로)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부부 두 사람, 즉 복수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출산하기 전까지는 임신에 대한 기쁨을 자제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필자는 앞의 두 연구자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차차가 임신한 것에 대한 기타노만도코로의 불편한 감정, 그리고 그것을 히데요시가 걱정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읽어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히데요시는 당연히 이전부터 차차의 임신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기타노만도코로로부터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받은 것은 나고야에 온 하녀 히가시의 입을 통해서였다. 이 단계에서

산달의 부자연스러움이 발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지는 않았을까. 히데요시가 부재한 가운데 성 내를 책임지고 있던 기타노만도코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히가시의 보고를 듣고 히데요시는 말을 가려서 편지를 써 보냈다. 니노마루도노의 아이가 히데요시의 아이가 아니라하더라도 니노마루도노의 아이라 여기고 소중하게 키우자.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말로 기타노만도코로에게 그 뜻을 전했던 것이다.

어쩌면 히데요시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면 쓰루마쓰 사후에 조카 히데쓰구에게 간파쿠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히데요시 부재 중에 차차가 임신했지만 그는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긍정했다. 쓰루마쓰를 가졌을 때와 같은 행동을 했다.

차차의 임무는 ‘히데요시’의 자식을 낳는 것이었다. 차차의 아이라면 반드시 히데요시의 자식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쓰루마쓰도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아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 차차가 생각했던 것처럼 히데요시는 쓰루마쓰를 거부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차차의 두 번째 아들, 즉 쓰루마쓰를 대신할 아들이 필요했다. 그는 히데쓰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히로이(히데요리)의 탄생과 모자의 면회

히로이(히데요리)는 분로쿠 2(1593)년 8 월 3 일에 태어났다. 이 날짜의 『도키요시키時慶記』를 보면 “오사카에서 다이코의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자이의 딸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로이의 탄생을 알리는 편지 (3 일 송부)는 8 일에 나고야에 도착한다.(「오와다시게키요 일기大和田重清日記」). 오사카 나고야 간의 파발 소요일수는 약 6 일 정도이다. 히데요시는 9 일자로 기타노만도코로(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이 편지에서 아들의 이름이 히로이라는 것을 재차 지시하고 강조했다.(고다지 문서高台寺文書) 『군키노우치くんのうち』에는 “어딘가에서 주워 온 아이(히로이고: 주워 온 아이의 뜻)다”고 적혀있다.

4 일에는 기타노만도코로가 궁녀들에게는 기모노를, 어린 여자 아이에게는 비단 옷을 선물하였다.(『도키요시키時慶記』) 그러나 실제로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때처럼 폭발적인 축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당초 8 월 25 일 나고야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보다 빠른 15 일에 떠났다. 『도키요시키時慶記』의 분로쿠 2(1593)년 8월 18일자에 ‘다이코는 8월 15일에 오사카로 갔다’고 되어 있다. 전달하는 데 6 일 정도 걸리므로 18 일을 포함한 6 일 전에 파발꾼을 보냈을 것이다. 12 일 밤 교코쿠 다쓰코가 오사카로 향한 것으로 보아 오사카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12 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군키노우치くんきのうち』) 이는 제 1 진을 보낸 것으로 귀국을 먼저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를 후에 히데요시 본부대는 출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오와다시게키요 일기大和田重清日記」에도 보이지 않는다. 군대의 일부가 돌아간 것을 전군의 퇴진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히데요시는 8 월 25 일에 오사카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생아와 대면하고 아이의 어머니인 차차와 만났다. 히데요시는 차차에게 출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다. 소중한 아이를 잃은 지 3 년 만에 차차는 다시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그저 기뻐만 할 수없는 상황은 있었다. 히로이(줍다)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은 히데요시의 솔직한 기분을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아기는 7 월에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낭보는 매우 늦은 편이었다. 통설에 의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안절부절못하며 급히 나고야를 떠났다’고 한다. 덴쇼 20(1592)년 7 월 22 일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와 분로쿠 2(1593)년 히데아키가 하향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 『군키노우치くんきのうち』에 따르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7 월 21 일 새벽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22 일에 히데요시는 나고야를 떠났다.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 8 월 3 일, 『가네미교키兼見卿記』 8 월 1 일의 기록을 참고하면 8 월 2 일에 히데요시는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은 그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여 10 일 만에 오사카에 도착했다. 히데아키의 경우는 분로쿠 2(1593)년 3월 13일에 오사카를 출발하여 22일에 나고야에 도착하였다. 역시 10일 만에 도착한 것이다. (「賜廬文庫文書」 및 「武家事紀古案」 2 통의 히데요시 편지, 날짜불명. 『太閤書信』 p.245. p.247)

히로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소식을 들은 후 7 일이나 나고야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교코쿠 다쓰코보다 이틀이나 뒤에 출발하여 11 일 만에 도착했다. 앞의 두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오사카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몬인닛기多聞院日記』 분로쿠 2(1593)년 8 월 26 일, 27 일 내용을 보면 ‘다이코는 어제 밤에 오사카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봉건 영주의 영지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고후쿠지 다이조인의 승려가 히데요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오사카로 갔다’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쇼몬지(唱門師, 점쟁이) 추방

히데요시가 아이와 차차를 만난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 비참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시작은 9월이다.

『고마이닛기駒井日記』 분로쿠 2년 9월 11일

다이코는 오타케라는 이름의 하녀를 책망한 후 10일에 밧줄로 묶어버렸다.

이 일기는 단순히 하녀를 꾸짖고 밧줄로 묶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히데요시는 자신이 부재한 가운데 일어난 불상사를 듣고 쇼몬지(점쟁이)를 추방했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년 10월 19일

다이코는 오쓰(大津)로 갔다. 점쟁이 추방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히데요시가 오사카를 떠나 나고야에 있는 동안 궁녀들은 추문에 휘말렸고 이에 대해 비난받기도 했다. 점쟁이 역시 궁녀들로부터 많은 금과 은을 받아 비난받았다 .

『도키요시키時慶記』는 니시노토인도키요시(西洞院時慶)의 일기다. 그는 당시에 참의이자 귀족이었다. ‘점쟁이 추방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는 짧은 문장을 일기에 남겼지만 이는 이후 수년간에 이르는 점쟁이 탄압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었다. 점쟁이 즉 쇼몬지(聲聞師, 陰陽師)는 차별받는 계급이었지만 오사카 성 내에 있던 점쟁이는 궁정의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 조정의 쇼몬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점술사 가운데서 이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오사카 성 내의 점쟁이들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그들은 궁녀와 성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금과 은을 받은 죄목으로 추방당했다. 사진(동경대사료편찬소)을 보면 ‘義問’이라는 두 글자 사이가 약간 띄어져 있어 한 단어(의문, 의심)로 보기 힘들기에 ‘義’에 대해 물었다‘問(비난했다)’로 해석하고자 한다. 점쟁이는 일종의 샤먼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 무아지경에 빠트릴 수 있으며 영적 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마술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능력으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었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1593)년 10월 19일의 기록을 읽어보면 궁녀들의 불상사와 점쟁이의 추방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사에 연루된 여성들은 요도도노 주변에 있던 궁녀들이다. 물론 성 내의 모든 궁녀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1593)년 10월 20일) 점쟁이들에게는 그들 여성들로부터 금과 은을 받아 챙겼다는 죄목이 적용되었다.

오사카 성 요도도노의 하녀 처벌

점쟁이 추방 다음 날부터는 요도도노 주변의 궁녀들이 처형되기 시작했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1593)년 10월 20일

히데요시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의 어머니를 섬기는 하녀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 대한 처형이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 들었다. 고쥬스(孝藏主)는 다시 후시미로 돌아갔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1593)년 10월 21일

히데요시는 오사카에서 궁녀에게 형을 내렸다. 궁녀의 위아래 사람들은 그녀를 질식시켰다.

『도키요시키(時慶記)』 분로쿠 2(1593)년 11월 9일

나는 점쟁이들이 와서 변명하고 사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점쟁이 우두머리 오이노미카도 쓰네햄리(大炊御門 經頼)와 비밀리에 상의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히데요시 편지(大橋文書, 『豊太閤真蹟集』 40, 『太閤書信』 p.269)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 있다.

히로이에게 충분한 모유를 주도록 거듭 부탁한다. 모유가 충분할 수 있도록 잘 자고 밥도 많이 먹도록 해 다오.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이상 .

나의 매가 잡은 새 다섯 마리와 굴 세 바구니를 보낸다. 1 일에 편지를 받고 곧장 회신을 하고 싶었으나 매우 바빴다. 히로이는 건강하며 모유는 충분히 잘 먹고 있는지. 가능한 빨리 보고 싶지만 그 전에 밀접하게 규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만날 때 내가 화를 낼 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에서 보고들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돌아 갈 것이다.

25일

차차에게 후시미에서

다이코

히데요시는 추신에서 ‘히로이에게 모유를 충분히 주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차차가) 밥을 많이 먹도록’이라고 지시 했다. 이 편지는 히로이를 양육하는 데 대한 아버지 히데요시의 세세한 조언과 사랑이 묻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요도도노 주변에 연속적인 처형이 일어나고 있던 점을 염두에 두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중에 ‘규명해야 할 문제’, ‘화’라는 단어도 있다. “후시미에서 먼저 검토(해명)하겠다. 내가 오사카에 가면 무슨 일을 할 지 모른다.” 이는 분노에 휩싸인 히데요시의 심경을 반영한 편지로도 읽힌다.

25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그리고 히데요시는 무엇에 그리 화가 나 있던 것일까. ‘후시미에서’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후시미(伏見)에 있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던 분로쿠 2(1593)년 윤 9 월 혹은 10 월일 가능성이 높다. 『도키요시키時慶記』에 따르면, 그는 윤 9 월 20 일부터 27 일까지 교토 후시미에 있었고 10 월 19 일에는 오쓰에 있었다.(앞에서 언급) 이후 다시 후시미로 돌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20 일에는 기타노만도코로의 하녀 고쥬스(孝藏主)가 후시미로 갔다. 히데요시는 10 월 26 일 교토 주라쿠 성에서 히데쓰구가 자리를 만든 노(能)를 볼 계획이었지만 27 일 히데쓰구가 급히 후시미로 가게 되었다. 즉 히데요시는 10 월 20 일에서 28 일 사이에 후시미에 있었던 것이다. 귀족을 초대하여 노를 보려고 했던 계획까지 연기시키면서 급히 후시미로 가야했던 용무가 발생한 것인데, 히데쓰구가 히데요시를 급하게 만나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히데쓰구 측이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9 일에는 일을 처리하고 히데요시도 교토로 갔다. 같은 날에는 연기되었던 노가 주라쿠 성에서 이루어졌으며 히데요시도 여기에서 춤을 추었다. 즉 편지의 날짜는 분로쿠 2(1593)년 윤 9 월 25 일 혹은 10 월 25 일로 추정되며 이는 일련의 사건이 한창이던 때에 쓴 것이라 볼 수 있다.(『史料綜覽』昭和 29年, 『豊太閤真蹟集』에서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차차가 기뻐했을 리는 없다. 그녀의 하녀 오타케는 이미 오래 전에 처벌당했고, 그녀 주위의 가까운 궁녀들도 대거 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것이다. ‘많은 남녀와 승려’ (프로이스, 이 책 p.652)가 이윽고 처형되었으며, 아마도 히로이(히데요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살해되었을 것이다.

요도도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던 친분 있던 주변 여성들, 그리고 요도도노가 의지하던 승려들이 하나같이 화형 당하거나 교수형 당하던 국면에서 다이고의 편지는 도착했다.

히데요시는 표면적으로는 관대한 척하며 히로이의 탄생을 축하하였지만, 요도도노의 측근 여자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자신의 부하나 측근 30 명(프로이스의 기록에 의함)도 사형을 선고받는 사태에 이르렀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위 아래의 목을 죄다’에서 ‘위’는 그야말로

요도도노를 뜻하는 것이었다. ‘검토(해명)’, ‘화’라는 문면, 그리고 거듭 히로이를 소중하게 다루라며 젖을 주라는 문면을 보고 노부나가의 조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씩씩한 요도도노도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어린 아들의 어머니를 받드는 하녀’들의 죄라면 요도도노가 문책 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11 월 4 일에는 히데요시의 첩 중 하나가 처형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다케노코竹鋸¹³」로 책형 당했고 그들의 아이와유모는 팽형(삶아서 죽임) 당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이스도 니시노도인도키요시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 책 p.604) 여자(히데요시의 첩)는 잠시 휴가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오사카 성에서 나왔다. 황금 1 매를 받은 그녀는 이를 위로금이라 여겼다. 그녀는 승려에게 시집 가 아이를 낳았다. 1 년 전의 일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히데요시를 맞았다. 아이와 유모를 팽형에 처한 것은 일종의 경고였다. 형벌이 잔혹하면 할수록 소문은 널리 퍼진다. ‘어린 아이의 어머니를 시중하던 하녀’ 전체의 부도덕한 분위기를 히데요시는 몹시 혐오했다. 그는 극형을 통해 오사카 성 내부의 규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고 이러한 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소문도 또한 만들었다.

분로쿠 2(1593)년의 사건에 대해서는 도쿠가와 측에도 또 다른 문서가 남아있다. 『도다이키当代記』(『史籍雜纂』 수록, p.59)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각 지방의 음양사들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까봐 산에 숨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다이코를 섬기던 한 젊은 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군중들 속에서 구경거리를 보다가 붙잡혔다. 그녀에게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더니 음양사가 숨겨주었다고 답했다. 음양사들이 숨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각 지방의 음양사들은 발견되면 처벌당한다는 소문 때문에 산속에 숨었다. 소문은 이런 것이다. 다이코를 모시던 젊은 여성이 달아났는데 그녀의 행방이 묘연했다. 구경거리를 보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를 발견해 내어 붙잡아 지금까지 어찌 지냈냐고 물으니 음양사가 숨겨주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음양사들은 산 속에 숨게 된 것이다.

이 기사에는 승려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음양사만이 등장하며 여자도 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 한 명만 등장할 뿐이다.

다른 사료를 보면 음양사는 추방당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 젊은 여성이 『도키요시키時慶記』에 등장한 처벌된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¹³ 대나무를 톱 모양으로 만든 것(戰国 시대에는 실제로 대죄인(大罪人)의 목을 자르는 데 썼으나, 江戸 시대에 와서는 형식적으로 자르는 시늉을 하였음).

수 없다. 『도다이키当代記』는 남녀 두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다른 사료와 함께 대조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음양사가 여자를 숨겨 주었다는 사실, 이는 어쩌면 음양사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프로이스는 히데요시가 오사카로 돌아 온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지만 히로이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日本史』Ⅱ-45 *HISTORIA DE JAPAM*, segunde parte C, 80, V-p.604)

간파쿠는 자신에 나고야에 머무는 동안, 운명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요새 오사카 성에 있던 여자들로부터 10 개의 큰 금덩어리를 마치 훔치는 것과 같이 빼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격노했다. 그는 그 지방의 음양사들을 모아 수를 세었다. 그리고 악마의 사원 o Tango 에 있으면서 동전과 음식을 구걸하던 거지(pedingo esmola)를 소환했다. 그들 거지의 수는 800 명에 달했다.¹⁴

한편 마쓰다·가와사키가 번역한 책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간파쿠는 상기의 사람들에게 점쟁이 일을 그만 두게 했다. 그들에게 농업에 종사하도록 명령하고 분고 지방으로 이동시켰다. 간파쿠는 이들이 모두 대 도둑이라고 말했다. 간파쿠의 궁녀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과 부도덕한 일이 있어서 많은 남녀와 승려들이 사형되었다. 간파쿠는 Raynha(퀸, 기타노만도코로)의 비서 막달레나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성실한 이 자는 이번 소동과 무관하다며 형벌에서 그녀를 제외시켰다. 산 채로 화형에 처해지거나 목이 잘린 자는 30명이 넘었다.”

“이들 승려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반대로 병사들은 coray(조선)으로 건너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승려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자와 문란한 행위를 일삼고 또한 파렴치한 행위에 빠져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들 승려들을 조선으로 보낼 것이다.”

¹⁴ 마즈다 기이치와 가와사키 모모타가 번역한 책에는 동일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히데요시는 아타고(愛宕, 다이곤젠大権現) 신전의 재물을 모으려고 달려 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백 명에 달했다고 한다.” 라 번역하고 있다. pedingo esmola 를 ‘재물을 모으려고 달려 든 사람들’이라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거지(동전이나 음식을 구걸 사람)다. oitocentas pessoas (800 명)을 100 명으로 번역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인다. 원문에는 oito에서 줄 바꿈이 있어서 8 을 놓친 것이다. 100 명과 800 명은 그 이미지가 매우 다르다.(핫토리 「フロイス『日本史』Ⅴ部 80 章：松田毅一・川崎桃太翻訳の検証」 <http://hdl.handle.net/2324/18350>).

위의 번역본이 원전으로 삼은 텍스트에는 차이가 있다. Wick 씨의 책 (*HISTORIA DE JAPAM*, Biblioteca Naciona-Lisboa)은 ‘병사들의 여자들! suas mulheres !’이라고 되어 있다. ‘!’기호가 없는 사본도 있어서 마쓰다 가와사키 번역본은 이 부호가 없는 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여자라고 하기보다 병사의 여자, 즉 종군 때문에 집을 비운 남자들의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라는 부호가 붙었던 것이다.

오사카 성의 요도도노 주변에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노부나가 시대인 덴쇼 9(1581)년 4 월 10 일, 노부나가 치쿠부시마(竹生島)에 참배하러 갔을 때 반드시 나가하마(長浜)에서 숙박할 것이라 믿고 있던 아즈치(安土) 성의 한 여성이 니노마루에 놀러 가고 또 인근의 구와노미데라(桑実寺)로 외출해 버렸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30 리 정도를 돌아본 후 하루 만에 돌아왔다. 이 때문에 성 내의 ‘괴로움, 초조함, 놀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때 궁녀들은 밧줄에 묶이기도 했다. 궁녀들에 대한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자비를 청원하던 구와노미데라의 장로도 함께 처벌당했다.(『노부나가코키信長公記』) 성 내(오쿠고덴奥御殿)의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해서 성주가 부재하는 날이면 단 하루만이라도 외출하여 바깥 구경을 하려는 궁녀들이 많았다.

히데요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정으로 당나라나 고려로 먼 길 떠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히데요시가 부재한 가운데 기강이 느슨해 저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다.

히데요시는 성 내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측실, 차차를 표면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가 꽤 씹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한 일을 한 승려들과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이끈 여자들, 그리고 음양사였다.

『도키요시키時慶記』에 기록된 쇼모지(唱聞師, 혹은 声聞師)는 음양사라고 여겨진다. (양자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이 책 p.681) 이들은 ‘산오키算置’ 혹은 ‘하카세博士’라고도 불렸다. ‘운세를 점치는 흑마술사’(프로이스)도 같은 의미이다.

쇼모지, 즉 음양사는 원래 천시되던 존재였다. 이들 중 일부는 궁정에서 일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하급 점술사로 인식되었다. 점을 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절 내에서 점을 쳐주고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는 자들도 있었다. 프로이스는 흑마술사와 결식을 구분하여 표현하였지만 이들은 같은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쇼모지는 독경도 읽고 점도 보았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쇼모지와 음양사는 지금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무당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무당은 심신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장시간 주술을 부리고 악기를 사용하여 최면 상태로 이끈다. 대단히

격한 기도와 주술을 부리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신자들은 프로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악마의 마술사로 보고 있다. 단 무당은 여성이지만 쇼모지는 남성이었다.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흑마술사가 10 개의 큰 금 패를 오사카 성 내의 여성으로부터 갈취한 것이다. 이로써 쇼모지와 아타고에 있던 결식 800 명이 구속되었고 이들은 분고로 보내져 노동을 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오사카 성 내의 여자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때문에 다수의 여성들과 30명 이상의 승려들이 화형당하거나 목이 베어나갔다는 것이다.

『도키요시키時慶記』를 보면 남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쇼모지였다. 쇼모지와 승려가 사건에 연루된 것은 한편으로는 상관없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은 금과 은을 빼앗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의 처형 내용을 보면 쇼모지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벌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승려에게는 처형이라는 엄벌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도다이키当代記』에는 이 사건이 음양사들에 의해 일어났고 이들은 참수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0 개의 금 패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적은 양의 금이라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개나 되는 금 패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선의 의미로 나누어 주었다면 이 금 패를 건넨 사람은 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성이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히데요시 측근의 여성이라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도키요시키時慶記』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여성은 ‘오사카 오후쿠로’ 주변의 여성이라고 한다. 10 개의 금을 건넨 여성도 또한 요도도노와 매우 가까이에 있던 여성이다. 사실 요도도노가 가장 의심스럽다. 요도도노가 요청한 일(아이를 가지기 위한 기도)은 금 패 10 개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 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도무지 위험하여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로쿠 2(1593)년 겨울 이후, 음양사들에게는 시련이 닥쳤다. 이들의 추방은 10 월에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단지 음양사라는 이유로 탄압받기도 했다. 프로이스가 쓴 글의 뉘앙스를 보면 거지 사냥처럼 이들은 농촌 재개발을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 오사카 성에 관계한 음양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음양사가 그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일제히 개간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종교 탄압, 농촌 재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오사카 성에서 일어난 불상사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 발단이 오사카 성 내에 있었다는 것은 명기되어 있다. 음양사의 추방은 오사카, 교토, 단바 등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관동 지역으로도 확대되었다. 분명 이 사건에는 음양사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궁중 음양사는 차별받던 향촌 음양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건의 영향은 그들 조직 말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사건의 해석

역사 해석은 시점과 전제를 바꾸는 것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히데쓰구에 관한 사건이다. 히데요시와 조카 히데쓰구와의 대립은 히데요시의 아들 쓰루마쓰가 태어났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히데쓰구는 아직 간파쿠가 되지 않았었고 후계자 후보일 뿐이었다. 쓰루마쓰가 사망하자 히데요시는 히데쓰구에게 간파쿠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그러한 가운데 예기치 않게 히데요리가 태어났다.

일반적으로 히데쓰구의 반역은 친자 히데요리가 태어나면서 자신이 가진 간파쿠 지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히데요리는 분명히 친자가 아니었다. 원래대로 한다면 부도덕한 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로서 죽어야 마땅한 자식이지만 후계자가 된 것이었다. 히데쓰구의 반발은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요도도노 주변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가운데 히데쓰구는 귀족들과의 노(能)를 미루면서까지 히데요시를 만나러 갔다.(이 책 p.648) 아마도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출생에 관한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히데요시에 대해 히데쓰구나 그의 처자, 가족들은 격한 불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히데쓰구 사건에서는 그의 아내와 첩, 자식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는 전국시대에 일어난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적대자, 모반자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나 아들을 죽이는 것이 보통이다. 여성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¹⁵

그러나 히데쓰구의 경우에는 처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는 범죄자, 모반자가 히데쓰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히데쓰구 일가 모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라도 히데요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면 용서되지 못했다. 히데쓰구 일가가 어떤 주장을 펼치려 해도 잔혹한 형벌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역시 불가능했다. 보고 들은 이야기가 있어도 교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낙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히데요시와 혈연 관계에 있던 자들, 예를 들면 아사노 나가마사, 후쿠시마 마사노리, 가토 기요마사, 기노시타 가쓰토시 등은 동군(東軍)에 있었고 도쿠가와

¹⁵ 오사카 진 이후, 히데요리의 아들 구니마쓰(国松)는 살해되었지만, 딸은 비구니가 되어 목숨만은 건졌다.(덴슈니天秀尼) 차차는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아자이 나가마사의 딸이었지만 무사했다. 하라성(原城) 농성 수모자의 한 사람인 아시즈카 추베(芦塚忠兵衛)의 아들은 물론 처형당했고 당시 11 살과 5 살이던 손자까지도 처형당했다. 그러나 처와 9 살 난 딸아이는 용서받았다.(服部英雄『歴史を読み解く』p.190)

이에야스 정권 설립에 가담했다. (히데요리 보좌역이었던 고이데 히데마사 가문 조차도 동서 양군으로 분할되었다.)

어릴 때부터 기타노만도코로에 의해 양육되어 일단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면서도 고바야가와(小早川) 가문에 양자로 보내진 히데아키도 마찬가지였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히데요리와 사이가 벌어진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히데요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아들인 것이다. 많은 다이묘들이 그 말에 순종했지만, 히데요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기타노만도코로가 도요토미 가문 및 오사카 성에 대해 거리를 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히데요시는 히데요리의 후견을 다이로(大老)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부탁했다. 이는 히데요리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로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도요토미 가문의 싱거운 와해와 멸망도 히데요리의 출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요토미 가문은 천하동일을 했으면서도 일대(一代)로 무너진 몇 안 되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1. 히로이를 수태했다고 여겨지는 날 밤,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았다.
2. 히데요시가 차차의 임신을 알게 되는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차차의 아이가 자신 부부(히데요시와 기타노만도코로)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3. 본진 부재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요도도노 측근 사람들이 대량으로 처형되었다.

필자는 히데요시에게는 생물학적 아들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4 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가설로 다시 돌아가, 지금까지 친자설로 해석되어 오던 여러 사료들을 재해석해 보았다. 새로운 사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사료들만을 사용했지만, 그 의미 부여나 결과는 반대였다. 차차(요도도노)의 입장에서 본다면 히데요시는 자신의 아버지(아자이 나가마사)와 어머니(이치), 그리고 오빠(만뿌쿠마루)를 죽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남편이 부모 형제의 구적인 것이다. 그러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질 리 없다. 오사카 성의 변영은 백부 오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강탈한 결과였다. 그녀는 ‘오후쿠로사마(어머니)’가 됨으로써 백부의 유산을 되찾았다. 차차는 히데요시보다 한 수 위였다. 노부나가 조카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진 여성, 요도도노 즉 차차를 재평가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충] 『비젠로진모노가타리備前老人物語』(『改訂史籍集覽』10 작자 미상)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히데요리가 태어난 것을 상중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축하했다. 그 때 어느 한 사람이 속삭이기를 ‘간파쿠가 몰락할 발단이 생겼다’고 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혼다라고 한다.

혼다는 혼다 사도노카미 마사노부(本多佐渡守正信, 사도지방 영주)이다. 그의 발언은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도쿠가와 측근에서는 이미 히데요리 탄생의 부자연스러움이 위기를 부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론 히데요시 친자설에 관하여: 초카쿠(朝覺), 이시마쓰마루(石松丸) 및 양자 긴고(金吾, 고바 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

초카쿠(朝覺)

나가하마 시대의 히데요시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와타나베 요스케(渡辺世祐) 『호타이코의 사적생활(豊太閤の私的生活)』(1939, p.52)에는 ‘친자인지 양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히데요시의 첫 번째 아들이다’고 지목된 인물이 있다. 바로 초카쿠라는 소년이다. 와타나베는 초카쿠에 대해 “친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친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미 『오우미요치시랴쿠近江輿地志略』에서 초카쿠를 히데요시의 아들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묘호지(妙法寺) 사찰의 구전에 기반을 둔 것으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와타 다다치카는 『다이코 도요토미히데요시太閤豊臣秀吉』에서 ‘다이코의 두 아들’(1986, p.181)이라며 친자설을 전개하였다. 후쿠다 치즈루는 ‘확증이 없다’며 친자설에 회의적이었지만(『요도도노淀殿』p.85), 오와다 테즈오(小和田哲男)는 구와타 설을 계승하여 친자설을 선택했다.(『기타노만도코로와 요도도노北政所と淀殿』p.36, p.43) 반면, 오타 코지(太田浩司)는 『신이 된 히데요시神になった秀吉』(시립나가하마 성 역사박물관)에서

구와타의 설에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히데요시 연구의 일인자인 구와타 씨에게 실례되는 말이지만 역사학의 논증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이하 사건을 덧붙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나가하마시 묘호지 절(니치렌종日蓮宗)에는 초카쿠 초상화가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화재로 소실되어 사진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사진 소장처의 사료 목록에는 ‘本光院朝覺居士畫像’, ‘傳豊臣秀吉子’라고 되어 있다. 초카쿠는 덴쇼 4(1576)년에 사망하였다. 이 목록에는 분명히 ‘傳’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다.

소년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늙름하다. 아름답기까지 하다. 나이는 여섯 살 정도일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의 머리모양(아게마키)에서도 알 수 있다. 고인을 아는 사람이 주기 법요에 맞추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는 도요토미(하시바) 히데요시의 아들이라 여겨졌다. (일부의 사람들은 친자라고 보았다.) 아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어릴 적 이름도 알 수 없다. 오타코지(太田浩司)도 『신이 된 히데요시神になった秀吉』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실명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p.109) 와타나베 요스케의 지적 이후, 이 아이를 히데카쓰라고 보는 설도 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¹⁶

그림 왼쪽에는 ‘本光院朝覺居士’, 오른쪽에는 ‘天正四丙子(1576 년 와타나베, 구와타 씨 모두 丙午라고 읽었지만 간지는 丙子이다.) 曆十月十四日’, 위쪽에는 범화경 경문 계(偈, 부처의 공덕을 찬소와는 시)가 적혀 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의 묘비도 존재한다. 정면에는 니치렌종(日蓮宗) 특유의 히게다이모쿠(髭題目, 南無妙法蓮華經 일곱 자 가운데 법(法)자를 제외한 여섯 자의 필단(筆端)을 수염처럼 뻗쳐서 써 놓은 것)가 아래에는 ‘朝覺靈位’라는 글자가, 우측에는 ‘天正四年’, 좌측에는 ‘十月十四日’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그림의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소년의 묘비라고 볼 수 있다. 원래는 사야도(鞘堂,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겉을 덮어 싸듯이 지은 건물)에 있었지만 이전

¹⁶ 노부나가의 친자로서 양자로 간 하시바 오쓰기 히데카쓰(羽柴お次・秀勝)의 실명 가운데 ‘秀’라는 글자를 히데요시(秀吉)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나머지 글자 ‘勝’은 시바타 가쓰이에(柴田勝家)의 이름에서 빌려 온 것이다. 히데요시의 양자 쓰기히데카쓰(次秀勝)의 이름 중 ‘勝’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노부나가의 친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히데카쓰를 처음 본 것은 덴쇼 8(1580)년 3 월 길일이다.(八幡宮奉加・羽柴藤吉朗秀吉・羽柴次秀勝連署狀 長浜八幡宮文書・『近江輿地志略』p.106 사진) 당시 히데카쓰는 어린 아이였고 이후 쓰기(次)라는 이름만으로 문서를 발급했다. 덴쇼 4(1576)년 이전, 히데요시 가문에서 히데카쓰라는 이름을 얻을만한 힘은 처음부터 없었다.

공사하는 가운데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묘석으로부터 2.5m 떨어진 지하에서 돌로 쌓인 상관묘(箱棺墓)가 발견되었다. 묘의 형식은 덴쇼 시대의 다이묘 일족의 무덤과 같다. 그림, 묘비, 그리고 무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초카쿠는 재력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요절한 것 같다. 덴쇼 4(1576)년은 하시바 히데요시가 나가하마 성주가 된 이듬 해이기도 하다.

법화경의 계(偈), 그리고 히게다이모쿠가 있는 것을 보아 초카쿠의 장례는 니치렌종 형식에 따라 치러졌다. 히데요시의 어머니

오만도코로(大政所)는 열렬하게 혼간지(本願寺)를 믿고 있었다.(이 책 p.622. 프로이스 『일본사日本史』. 단 묘소는 다이토쿠지大徳寺 덴즈이지天瑞寺이므로 린자이종臨濟宗 형식.) 초카쿠의 장례가 일련종의 형식에 따라 치러졌음은 분명하다. 당시 히데요시 일가의 종파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머니 오만도코로의 영향이 미쳤다면 혼간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에 누나 닛슈(日秀)는 니치렌종에 귀의했다. 니치렌종의 형식에 따라 장례가 이루어진 초카쿠는 역시 니치렌종 신자인 누나 닛슈(미요시三好 닛슈)와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닛슈가 세운 즈이류지(瑞龍寺)와 묘호지(妙法寺)는 지금도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한다.(오타 코지(太田浩司) 『신이 된 히데요시神になった秀吉』 p.113)

그런데 초카쿠를 히데요시의 친자로 볼 수 있을까? 초카쿠의 무덤 형태가 다이묘의 그것과 같고, 그림도 남아 있으며, 또한 당시의 성주가 히데요시였다는 이 사실들. 물론 이들은 고려해야 할 요건이지만 역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히데요시 부부는 초카쿠에 대해 회고한 적이 없으며 족보도 없다. 이와 더불어 초카쿠가 친자인 근거로 나가하마 시대의 히데요시가 사원에 기부한 것을 들 수 있다. 히데요시의 기부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도쿠쇼지(徳勝寺, 이오지医王寺) 덴쇼 4년 10월 15일

치젠인(知善院) 덴쇼 4년 10월 22일

묘호지(妙法寺) 덴쇼 14년 12월 8일

도쿠쇼지의 기부장은 초카쿠가 죽은 다음 날짜로 되어 있고, 치젠지의 기부장은 초카쿠가 죽은 후 8일이 지난 날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자로 하여금 초카쿠를 히데요시의 아들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치젠인에 보낸 기부장은 초카쿠 사후 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까. 도쿠쇼지에 보낸 기부장은 10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한 때에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묘가 있는 묘호지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도쿠쇼지, 치젠인에 기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영주가 사원에 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여기에는 안정적인 토지 지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세 통의 기부장 어디에서도 ‘초카쿠 추모를 위함’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기부장이 발행된 날짜도 일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카쿠 공양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어도 좋은 것일까. 덴쇼 14(1586)년 묘호지에 보낸 것이 추선(追善)이라면 그 대상은 누구인 것일까. 그 전의 해인 덴쇼 13(1585)년에 죽은 오쓰기 히데카쓰(히데요시 양자)¹⁷에 대한 추선이라고 보아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 날짜는 초카쿠의 제삿날도 아니다.

만약 초카쿠 추선의 의미로 기부할 셈이라면 일주기 법요 날짜에 맞추어 묘소가 있는 묘호지에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기부장은 남아있지 않다. 사망 직후 혹은 장례 전에 다른 절에 기부한 것이라면 이는 히데요시와 초카쿠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초카쿠를 히데요시의 아들(양자)로 볼 수는 없다. 히데요시 주변 사람 예컨대 친척이나 누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히데요시의 중신이나 아자이 일족일 가능성도 있다. 히데요시의 친자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단, 히데요시는 만 40 세의 나이로 성주에 올랐기 때문에 아들을 입양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시마쓰마루(石松丸)

다음으로 치쿠부시마(竹生島) 기부금 기록(竹生島寶嚴寺文書)을 살펴보자. 나가하마 성주 하시바 히데요시는 치쿠부시마에 스스로 쌀 100 석을 봉납했다. 그 외에도 그의 가족과 가신들이 돈과 쌀을 봉납했다. 이는 헌납을 받은 측이 정리한 기록에서 확인된 것으로, 목록에는 히데요시 가문의 사람들과 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이시마쓰마루를 히데요시의 친자로 보는 설이 있다.

치쿠부시마 기부금 기록(『오우미요치시라쿠近江輿地志略』 4, p.430) 표지에는 ‘竹生島奉加帳 百石 羽柴藤吉良秀吉(花押)’라고 되어 있다.

오하쓰오(御初尾, 그해 첫 수확) 5월 길일 쌀 5 석 오우치가타(御内方, 네)

¹⁷ 오쓰기 히데카쓰는 덴쇼 13 년(1585 년) 12 월 10 일 가메야마 성(龜山城)에서 18 살의 나이로 죽었다.(大德寺畫像 외, 『大日本史料』 11 편 24, 同一條) 『가네미교키兼見卿記』 기사에 동년 11 월 3 일에 위독하여 어머니(노부나가의 측실)가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명한 것도 이다. 덴쇼 13 년(1585 년) 9 월 18 일 안코지(安岡寺) 문서, 동월 길일 시미즈(清水)문서에 '하시바 고키치 히데카쓰'라는 서명이 있고 화압(花押)도 있다. (『大日本史料』 11 편 24, p.310, p.405) 전자는 년호를 월일 오른 편에 쓴 것이고 후자는 년호 월일을 한 줄에 쓴 것이다. 두 문서 모두 고키치라고 명기되어 있고 오쓰기라는 이름은 없다. 오쓰기 히데카쓰가 있는데 형제(아마도 동생)인 고키치가 히데카쓰의 이름을 사용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곤란한 점이 있어 앞으로 년호, 이름 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30 푼(疋 히키) 지주도노(侍從殿 志ゝう殿)
 오하쓰오 5월 길일 쌀 1 가마니 오카타도노(大方殿, 히데요시 어머니)
 50 푼 오초보(御ちよほ)
 100 푼 5월 길일 이시마쓰마루(石松丸), 오치노히토(御ちの人)
 쌀 20 두 유모(うば)
 10월 길일 오하쓰오 쌀 1 가마니 오카타도노(大方殿)
 이백 문(文 몬) 오후우(おふう)
 20 푼 미나미도노(南殿)
 300 문 마마(まゝ)
 두장(斗帳) 하시바치쿠젠노카미도노(羽柴筑前守殿)
 20 푼 오아코(おあこ)
 덴쇼 6년 2월 10일 쌀 2 석 오우치(御内)
 20 푼 오이시(おいし)
 20 푼 오야사(お夜叉)
 20 푼 주쵸도노(中將殿)
 300 문 미야도노(宮殿)
 덴쇼 6년 2월 10일 쌀 10 석 스기하라 야시치로(杉原弥七郎)
 20 푼 오미야(おみや)
 50 푼 미코다 도자에몬(神子田藤左衛門) (화압)
 덴쇼 4년 5월 길일
 3관 문 스기하라 야시치로 이에쓰구(杉原弥七郎 家次) (화압)

(이하 장문 때문에 생략)

위와 같은 기부 기록이 시작된 것은 덴쇼 4(1576)년 5월 길일부터라고 추정되며¹⁸, 여기에는 오우치가타(네)와 그녀의 숙부인 스기하라 이에쓰구(시치로자에몬. 위의 기부 기록에는 야시치로라고 되어 있다.)와 그의 아내의 이름과 하타羽太(우다宇田)이에요시家慶등이 보인다.(이에쓰구의 아내 등 다른 사람의 기부 기록은

¹⁸ 표지에는 「羽柴藤吉良秀吉」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 중에는 「筑前守殿」라고 되어 있다. 히데요시는 덴쇼 2(1574)년 2월에 藤吉郎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발급하였다.(『近江長浜町志』p.384) 그리고 덴쇼 3(1575)년 8월에는 筑前守秀吉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발급하였다.(『近江長浜町志』p.423)

생략하였다.) 기재는 덴쇼 4(1576)년 5 월 길일에 기부가 시작된 이후, 덴쇼 5(1577)년 정월(11 일, 13일부터 18 일), 11 월 22 일, 12 월 길일, 그리고 덴쇼 6(1578)년 2월에 기부가 이루어졌다. 덴쇼 6(1578)년 2 월 이후 덴쇼 16(1588)년 정월까지는 공백이다.(기록이 있는 것은 5월 28 일 뿐) 히데요시가 나가하마를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오사카 성으로 이동한 후, 나가하마의 일을 떠올리고는 다시 기부를 시작한 것 같다. 한편 오히가시도노(御ひかし殿)의 이름이 덴쇼 16(1588)년 기록에서 보인다.)

기부 기록의 서두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의 기부는 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 기부날인 5 월 길일에는 히데요시의 아내인 오우치가타(네, 기타노만도코로)가 몇 명의 사람들과 기부를 했다. 그녀가 기부한 쌀 5 석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그 뒤를 지주도노, 오카타도노, 오초보가 이었다.

오카타도노는 히데요시의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하시바(도요토미) 가문 기록에 남아 있는 여성과 기부 기록에 남아 있는 여성의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다. 바로 초보(ちよぼ)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게이쵸 3(1598)년 9 월 17 일에 피로 밀봉 서약(大阪城天守閣文書)을 썼다.(『ねねと木下家文書』) 그녀는 후시미 성의 금과 도구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자필로 초보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益田文書『豊太閤真蹟集』) 편지를 보면 그녀가 주라쿠 성의 다도 도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하마 시절의 기부 기록에 남아 있는 초보(ちよぼ)라는 여성이 20 년 후에 주라쿠 성, 후시미 성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주도노(侍従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지주(侍従)와 관련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쌀 다섯 석는 동전 5 관, 혹은 오천 문(지금의 화폐가치로 75 만 엔 상당)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부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금액의 단위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기부받을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보(ちよぼ)에 이어 같은 그룹 내에 이시마쓰마루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유모도 확인할 수 있다. 이시마쓰마루의 이름 뒤에는 ‘오치노히토(御ちの人)’라고 덧붙여 쓴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오치노히토(お乳の人)’와 ‘우바(乳母)’는 같은 뜻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하는 일도 있다.(예를 들면 오토기조시(御伽草子) 가운데 『술 먹는 동자酒呑童子』에는 ‘おちや乳母の付き添ひて(젖을 주는 사람과 유모를 데리고)’라며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위의 기부 목록에도 ‘오치노히토(お乳の人)’와 ‘우바(乳母)’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오치노히토(お乳の人)’가 젖을 먹이는 사람, ‘우바(乳母)’를 보육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오치노히토(御ちの人)’가 이시마쓰마루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사람이 ‘오치노히토(御ちの人)’라고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마쓰마루는 나가하마 성 내에서 키워지고 있던 아이였던 것 같다.

필자는 이시마쓰마루가 덴쇼 4(1576)년 혹은 5(1577)년에 젓먹이였다고 예측하는데 만약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이시마쓰마루는 덴쇼 4년(1576)년에 이미 6살의 나이로 자라 그해 10월에 죽은 초카쿠와는 별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0월 길일에 기부한 그룹을 살펴보자. 오카타도노가 쌀 한 가마니를 기부하였고, 오후우(おふう)가 200 문, 그리고 미나미도노가 20 푼, 마마(まゝ)가 300 문을 기부하였다.

미나미도노에게는 ‘도노’라는 존칭이 사용되어 있다. 그녀는 이 사료의 후반에 등장한다. 덴쇼 5(1577)년 11월 22일에도 미나미도노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졌다. 구와타 다다치카는 그녀를 히데요시의 첩이자 이시마쓰마루의 어머니라고 보았다.

‘성 안의 미나미도노(御城の南殿)’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인물이 성 내에 있던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한 40세였던 성주 히데요시의 첩이라고 보아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그러나 단지 측실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부금액이 너무 적다. 그녀는 오카타도노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더욱이 그녀가 이시마쓰마루의 어머니라고 확정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시마쓰마루의 ‘오치노히토(御ちの人)’는 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시마쓰마루가 하시바(히데요시) 가문에서 소중하게 키워지고 있던 아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히데요시의 친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나미도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가 오아코(おあこ)이다. 그녀는 기노시타 족보에서 긴고(金吾,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의 생모라 전해지는 여성과 이름이 같다. 가로(家老) 스기하라 이에쓰구의 둘째 딸로서 나가하마 근처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쓰구의 사위 이에사다는 스기하라 고로쿠로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인 아코(あこ)에게는 ‘도노’라는 경칭이 아직 붙지 않은 상태였다.

긴고(金吾, 고바야가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

히데요시는 나가하마 성주로 있는 동안 긴고(이후 히데토시秀俊,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同秀詮)를 양자로 들였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히데요시의 후계자로서 히데쓰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히데요시의 위치를 계승할 강력한 후보였다. 덴쇼 10(1582)년 혼노지(本能寺) 변(變) 때 긴고(기노시타 이에사다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다)는 히데요시의 양자로서 나가하마 성으로 들어왔다. 긴고가 절 소지지(總持寺)에 은신한 것을 기타노만도코로의 궁녀 히가시(東)가 편지로 보고한 문서가 소지지에 남아 있다.(나카가와

센조中川泉三 『오우미나가하마쵸시近江長浜町志』 1988, vol4, p436, 『가이테이 오우미코쿠사 카타군시改訂近江国坂田郡志』 2, 1944)

나는 당신(고마이지로자에몬)의 대여섯 명의 가신들이 오우미 북쪽에 있는 료곤인(楞嚴院) 소지지(総持寺) 절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그들은 자신의 주군 노부나가를 배신한 혼노지 사건에서 긴고를 숨겨 준 소지지 절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해 받았다. 이로써 당신은 앞으로 좋은 평판과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나곤 사마(도요토미 히테쓰구)도 동의하였기에 곧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직접 주나곤 사마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사카에서 19 일

(봉인)

고마이 지로자에몬 도노 히가시

(소지지 문서)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손상되어 있지만, 밀봉된 봉투의 글자에서 이 편지를 기타노만도코로의 최측근 궁녀 히가시(ひかし, 東, 오타니 요시쓰구의 어머니)가 쓴 것을 알 수 있다. 639p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노만도코로의 어머니 아사히(朝日)는 히가시의 백모라는 설(『시오지리塩尻』)이 있고, 히가시는 기타노만도코로의 종자매일 가능성이 있다. 치쿠부시마 기부장에도 덴쇼 16(1588)년 항목에 오히가시도노(御ひかし殿)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긴고(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유명한 인물이지만 실제로 그의 사망시의 나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때문에 그의 연령도 알 수 없다. 긴고가 덴쇼 3(1575)년에 태어났다는 설(나카가와 씨는 긴고가 기노시타 이에사다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근거는 불명하다.)이 있는 반면 덴쇼 10(1582)년에 태어났다는 설(『기노시타 아시모리 가후木下足守家譜』 사료편찬소 사료목록 DB, 히토미 아키히코 『네네와 시노시타 가문 문서ねねと木下家文書』 등)도 있다. 그리고 그는 게이쵸 7(1602)년 10 월 18 일에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도키요시키時慶記』 등.) 이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난무하다. 『기노시타 가후木下家譜』와 일치하는 것은 21 세 사망설(『譜牒餘錄』, 『寛政重修諸家譜』)이고 그 외에도

22 세 사망설, 23 세 사망설, 28 세 사망설(『慶長見聞書』)이 있다. 『大日本史料 稿本』은 21 세 사망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와타나베 요스케는 『호타이코의 사적 생활』 261 쪽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긴고가 26 세에 사망(덴쇼 5(1577)년출생)이라 보고 있음.)했다고 하며 나카가와는 28 세에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기노시타 가후木下家譜』에 따라 21 세 사망설이라 보면, 혼노지의 변 당시에 긴고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기였다. 항간에는 히데요리가 태어난 이후 긴고는 술에 미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의 긴고는 12 살에 지나지 않았다. 게이초 2(1597)년 총대장으로 조선을 침략 (정유재란)했을 때의 나이가 16 세(이 때 실수를 범해 영토가 감소했다.)이며, 세키가하라 전투 때에는 19 세라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 긴고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의 형 기노시타 노부토시(木下延俊)의 나이를 확인해 보면, 『기노시타 가후・빃츄아시모리木下家譜・備中足守』에는 간에이(寛永) 15(1638) 1 월 7 일 사망, 당시 65 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노시타 가후・분고히지木下家譜・豊後日出』에는 간에이 19 (1642)년 1 월 7 일 사망, 당시 66 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에 차이가 있지만 「간에이넛키寛永日記」에 의해 후자 간에이 19 년 사망설이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노부토시는 덴쇼 5(1577)년 태생으로 긴고는 노부토시와 같은 어머니 배에게 태어난 네 번째 아들 혹은 다섯 번째 아들이라는 설이 있다. 만약 긴고가 덴쇼 7(1579)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그는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때(1593 년) 만 14 살이 넘는 상황이므로 술에 빠져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세키가하라 전투(1600 년) 때에는 만 21 세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출전은 불명하지만 나카가와 씨처럼 덴쇼 3(1575)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술에 빠져있었을 나이는 만 18 세가 되므로, 이 역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히데아키는 덴쇼 13(1585)년 윤 8 월 11 일 히데요시 편지(『太閤書信』 p.119)에서 ‘긴고(きん五)라 불리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임관했다고 볼 수 있다.(정 5 위・에몬노가미正五位・衛門督로 예상.)¹⁹ 히데요리는 분로쿠 2(1593)년에 태어나 게이초 2(1597)년에 좌소장(左少將, 정 5 위 상당, 다음 날에는 좌중장 종 4 위 상당에 임명) 임관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 세(만 4 세)였는데 이는 특례적인 사례이다. 히데아키(긴고)가 덴쇼 3(1575)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역시 10 세 이전에 임관한 특별한 사례가 된다.

¹⁹ 와타나베 요스케의 저서 261 쪽에서 임관을 ‘우에몬노조右衛門尉’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다바타 야스코(田端泰子)의 『기타노만도코로 오네北政所おね』 199 쪽에도 덴쇼 19(1591)년에 ‘참의・우에몬노가미・종 4 위’였다고 하고 있으나 『구교부닌公卿補任』에는 참의・종 4 위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우에몬노가미는 없다. 그 이전에 우에몬노가미 임관은 있었다.

오아코(おあこ, 雲昭院)은 기노시타 이에사다 아들 가운데 네 명을 낳았다.(가쓰토시勝俊만 다른 어머니) 그녀는 스기하라 이에쓰구의 둘째 딸이다.(『기노시타 가후木下家譜』) 이에쓰구는 이에사다의 숙부이므로 종형제가 결혼한 셈이 된다. 『네네와 기노시타가문 문서ねねと木下家文書』의 가계도(p.161)를 참조하면 오아코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생모이다.²⁰

가계도에는 없지만 오아코와 이에사다 사이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있다. 다산이었던 셈인데 오아코가 이미 세 아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네는 종자매 오아코에게 막내 아들을 양자로 보내주기를 요청한 것 같다.

이시마쓰마루는 덴쇼 4(1576)년 5 월에 갓난아기였다. 만약 나카가와 씨나 『慶長見聞書』가 말하고 있듯이 긴고가 덴쇼 4(1576)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시마쓰마루가 긴고라는 셈이 된다. 『기노시타 가후木下家譜』 등의 기술로터 추정되는 연령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록 자체에도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히데요시나 기타노만도코로, 그 외 관계자들이 히데요시가 나가하마 시절에 자식을 낳았다고 말하는 문건은 찾을 수 없다. 히데요시에게 친자가 있었다면 그는 “나는 마흔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양자를 포함하여 가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어떠한 문헌을 보아도 나가하마 시절에 낳은 아이의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프로이스가 “히데요시는 정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세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히데요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 누구도 나가하마 시절에 자식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는 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²⁰ 이 가계도에는 오아코를 도시후사(利房)의 아내라고 하지만 세대적으로 맞지 않아 이에사다의 아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아코라는 이름의 출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으며 『기노시타 가후木下家譜』 가운데에는 그 이름이 있는 모양이다.